朝鮮日報
夕刊 十一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金鶴香油

歷史的御前會議
對支根本策確立

【東京電話同盟】抗日政權을根絶하고 東洋永遠의 平和確立을 期하려는 歷史的 御前會議는 十一日午後一時부터 宮中表御座所에서 天皇陛下 御親臨下에 嚴肅히 開催되엿다

大本營側=閑院 伏見 兩幕僚長宮殿下 多田參謀次長 古賀軍令部次長、政府側=近衛首相 廣田外相 杉山陸相 米內海相 末次內相 賀屋藏相 特旨로써平沼樞府議長等이 參列、風見書記官長 町尻陸軍 井上海軍 兩軍務局長은 別室에머물러 十日의 閣議에서 決定한對支 根本方策을 議題로 重大協議가 進行된結果 今次事變에 對한 帝國不動의 最高方針은 玆에確立을 보게되엿다 따라서 我對支方針은 右決定에 基하야 運用되게 되엿고 今後 目的達成을 爲하야 政戰雙方으로 斷乎한 措置가 具體化되게되엿다

半額은所得稅로 他半額은新稅創設
三億圓增稅案內容

【東京電話同盟】臨時軍事費特別會計追加豫算의 財源이될新稅增稅案에對하야는 目下 大藏省에서 立案中으로 議會再開前後에는 稅制調查會에 附議할豫定이다 大藏省에서는 三億圓의 增稅案中에 그半額程度를 所得稅、臨時利得稅等의 直接稅에依하고 他半額을 間接稅、新稅에依하야 捻出하려하는目標로 벌서決定、或은 그硏究中인 諸點은 左와갓다

◀所得稅
一、第三種所得稅의 免稅點引下에對하야는 널리國民에게 時局認識을 徹底케 하기爲하야 輕微한 引下를 할것이라는議論이잇서 아직決定되지안헛다
一、超加所得稅에는 손을대지안흘方針이다
一、第二種所得稅增徵에 對하야는輕微한程度에 그친다
◀臨時利得稅의 增徵에對하야는 硏究中이다
◀營業收益稅地租는 大體로增稅치안흘意向이다
◀酒稅、砂糖消費稅、織物消費稅增稅、油稅等 消費稅中에 織物에對하야 增稅反對의 意向이 强硬하다
◀取引所稅
取引所稅는 多少의 增稅를하나 取引所營業稅에는 손을대지안는다
◀物品取引稅
現行物品取引稅의 稅率引下보담도 그品目의 範圍擴張을主眼으로하야 目下 候補로되여잇는 物品數만도 五六十種에 達한다
◀新稅
一、通行稅
課稅의對象은 大體로 五十粁以上으로 距離에應하야 增徵코저 計劃하고잇는데 稅收入의 關係로 더距離를 短縮할지도모른다
一、市電市內뻐스에 課稅할생각은업다
一、住宅新築稅免稅點을 一萬圓으로할지 二萬圓으로 할지에 對하야 目下 硏究中이다
一、據寸稅 增稅할지아니할지에對하야 目下 考慮中이다

英、新嘉坡에서 陸海空軍大演習

【新嘉坡十日發同盟】英國政府는 來二月下旬에 新嘉坡軍港을 中心으로 陸、海、空三軍合同下에 立體的大攻防演習을 擧行하야新嘉坡根據地가 始作된以來의 大規模的近代戰을 展開하기로 되엿는데 十日 新嘉坡에서發表된演習計畫에依하면 英國政府는當初의計畫을 擴大하야 空軍勢力을增强하야 約百機에達하는 空軍航空部隊를 參加시키기로되엿다 同計劃의 內容에依하면 參加空軍部隊는 印度、이락으로 부터 參加豫定인 三個中隊를 五個中隊(第六第三十六第八十四第二百三各中隊等)로 增加하야 그機數는 爆擊機十二機 爆擊輸送機八機에達하는以外에 新嘉坡의 飛行艇四機와 英國空軍 三十六機 航空母艦이글뤼 艦載機全機等約百機에 達할 豫定이다 그리고今後大演習에關하야 UP新嘉坡支局은 空軍大部隊의 參加는新嘉坡 根據地를 英國帝國領內의最大의空軍根據地가 되게하려는 英帝國의 意圖를 示唆하는것으로 注目된다

厚生大臣親任式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압서는 十一日午前九時五十分 宮中鳳凰間에出御 近衛首相이 侍立하야 厚生大臣親任式을 行하압신後 木戶文相에對하야 親任의 勅語를 賜하시고 首相으로부터 左記官記를授하엿다

文部大臣 正三位勳一等侯爵 木戶幸一
兼任厚生大臣

厚生省人事
既報대로發令

【東京電話同盟】新設厚生省은十一日官制公布와함께 開廳하게되엿는데 木戶初代大臣의親任式終了後 廣瀨次官以下各局長 其他職員은 既報대로 發令되엿다

內外棉에又復投彈

【上海十日發同盟】十日午後九時頃에 共同租界楊樹浦路의 內外棉會社裏에서 手榴彈가는 爆音이 들리고 同時에 竹頭의 一部가 燃燒하고잇슴을 發見하고 即時社員의손으로 大事에이르지 안코 鎭火하엿스나 同日正午에는 伊太利步哨를 狙擊한 爆擊事件等도잇서서 當局에서는 緊張裡에 搜査를 進行하야 犯人을 嚴探中이다

防共協定參加엔 墺匈代表는拒絶
民主主義諸國에對한關係로
羅馬議定書調印國會議

【부다페스트十日發同盟】羅馬議定書調印國會議는伊太利外相차노伯 墺太利首相슈슈닉博士 同外務次官슈밋博士 匈牙利外相데·캉야氏 出席下에 十日午後五時부터開會되엿다 席上에서 伊太利代表차노外相은 羅馬議定書調印國의 防共協定 參加를 提案하엿스나 墺太利、匈牙利 兩國代表는 同案이共產主義에 對抗하는 同時에 間接으로 民主主義各國을目標로하는것이라는 理由로 이에 反對를表明하엿다 會議中에 슈슈닉、슈밋兩代表가 主로 發言하야 具體的提案을 할것으로豫想되엿다 차노外相은 거이 發言치안코 終始筆記를 하엿다 會議는 前後二時間의後 同七時十五分에 散會하고 十一日도續行된다

英、極度로警戒
墺匈의防共戰線參加를

【倫敦十日發同盟】羅馬議定書調印國會議는 十日부다페스트에開會되여 伊太利가 墺太利、匈牙利兩國에對하야 日獨伊防共協定參加를要求하리라고 傳하기때문에 萬若이것이實現되면 中歐의情勢에 一大變化를 齎來하므로 英國政府는 그趨移를 極度로警戒하고잇다

新嘉坡事件
警察에嚴重取締要求

【新嘉坡十日發同盟】九日新嘉坡에이러난 邦人三名狙擊事件에關하야 新嘉坡駐在帝國總領事岡本一策氏는 十日午後에電話로 警察當局에對하야 事件發生을 遺憾하여 今後의 嚴重取締를要求하는同時에 다시文書로써 온레이트總警視總監에게 邦人의 生命財產保護를 爲하야 今後 支那人의 排日運動을 嚴重히 取締하도록 注意를 喚起하엿다 그리고 兇徒의 뻐스襲擊에 際하야 乘客中의 支那人婦人一名은 던진돌에마저 重傷을입어 마츰내 死亡하엿다

時事解說
工部局問題

가、今 上海工部局問題가 여러나 注目을 끌고잇다。

어工部局이라는것은 上海共同租界在留各國民의 自治行政府이다。租界自治制의 行政機關은 議決機關인 公民會와 執行機關인 行政委員會(市參事會라고도譯함)는 公民會에서 選擧한 各國人으로 組織된다。同委員會의 權限은 租界行政의 거이 全部에 亘하야 行政委員中에서 選任한 工部局事務總長下에 各部局을두고 警察、消防、保健、公共事業、敎育等各般의 事務를 處理하고잇는바 이것이 即工部局이다。

×

그런데 이行政委員會는 共同租界自治行政을 自由로하고잇서 그行政委員數는 在留各國民의 利害에 至大한 關係를 가지고잇는바 現在 그定數는 十四名인데 英國五、支那五、米國二、日本二의 比例로되어잇서 英國이 壓倒的多數를占하야 租界行政을 左右하고잇다。따라 行政委員會에잇서서의 英國의 勢力은 事務當局인工部局을 活用하는 事務總長의 地位를 英國勢力으로 占하고 工部局吏員으로 말할지라도 英國이 絶對的優位를 占할뿐아니라 그待遇도 白人、日本人、支那人의 順序로 三段的差等을 設하야 同地位에잇슬지라도 給料에 差異가잇다。

×

이러한 形便으로 [illegible] 그活動力으로보나 日本人의 勢力이 列國中 [illegible] 的임에도 不拘하고 多數的待遇를 바더오든中 어떤 支那事變에잇서서의 諸情勢에 鑑하야 去四日 日本側으로부터 工部局當局에對하야 工部局各·警察部中 要職에 日本人採用을 增大하고 日本人을 任用하라는 二項目의 要求를 提出하게되어 工部局 問題를 이르키게된것이다。

開京하라고한다 任命된滿京의全部 合하야 一週間의 限定、所謂 總行事이다 勿論政府에도 以上의 事實上事件에對하야 適當한 上必要한 措置를 [illegible]이나 其他事務政府에는 一切不當行爲 定이다 여러가지 關係로來十八日에는 期於히 歸任하라고한다

滿洲國領事館에 蘇聯側壓迫酷甚

【新京十日發同盟】在蘇聯各滿洲國領事館에對한 蘇聯官憲의 壓迫狀況은 形言할수업는데 特히昨年蘇聯의壓迫은 더욱徹底的이므로 不法不當에對하야 滿洲國外交部當局은 現地와 哈爾濱에서 異常한熱心으로써 不法不當한 處置의撤回를 要求하여왓스나 그後 蘇聯은 滿洲國側의 誠意에對하야 何等反省의 빗치업고 最近에이르러 領事館員의 生活까지 威脅하려는 態度를보여 關係各方面을 一層刺戟激昂케하야 萬若 蘇聯側이速히反省치안는때는 適切한對抗手段을 取함도不得已하다는 空氣가擴頭하게되엿다 그리고 블라고베시첸스크、치타各領事館에對한蘇聯의暴狀은 一例를들면 次와갓다

一、블라고領事館
가、尾行의徹底
나、食料品購入의妨害
다、醫師派遣의拒絶
라、블市、黑河間交通의遮斷
二、치타領事館
가、館員의逮捕와壓迫
나、館員의尾行

廣西娘子軍 漢口에進出

【維育十日發同盟】AP漢口特派員十日의報道에依하면 廣西의女子百五十名으로된 廣西女子大隊는 廣西省桂林을 出發하야九百六十粁의 道路를 徒步로 行進하면서十日漢口에 到着하야揚子江岸의 米國大使館前에 集合하엿다 一行中에는 最低十六歲의少女도 석겨잇다 一行은 北을치고 喇叭을불고 旗를앗고 男子要塞聯隊와 同樣으로 모두가 鐵砲를 携帶하고 男子同樣으로五十킬로의 背囊을 메엿다 이女子軍은 全國女子軍의 中核이다 支那當局은 同部隊의 主要한任務의 一은 鄕村에드러가 地方農民等에게 戰爭意識을 鼓吹하고 國防의必要를傳함에 잇다고하고同部隊는 近近北方戰線에 出動하야 抗日戰에 活躍하기로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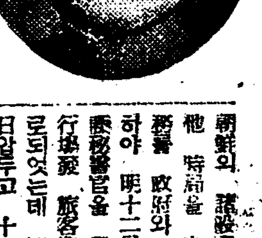
濰縣占領

【濟南十一日發同盟】膠州灣攻拔하고 破竹之勢로 膠濟線에沿하야 東方으로進擊中인 長野(祐)部隊의先鋒은 九日 昌樂에서二

山瀨、島谷兩部隊
隴海、津浦兩停車場猛爆

【○○基地十一日發同盟】山瀨部隊 島谷部隊의 ○○機는서로呼應하야 十日午後四時徐州를襲擊、隴海、津浦兩停車場을猛烈히爆擊 各十數輛列車鐵道線路、驛舍建物等에 數十發의爆彈을 命中시키어 此를破壞하엿는데 敵에多大한損害를與하엿다

總督明日渡東
中央과重要事務折衝次



南總督은 現下非常時局에對한 朝鮮의、諸般事情을 上奏하며 其他 時局을 中心으로한 重要事務를 政府와 協議折衝하기 爲하야 明十二日午前十一時半 汝矣島飛行場發 旅客機로 急遽渡東하기로되엿는데 總督은 發程日을 一日압두고 十一日午前十時四十分 左와 如히말하엿다

南總督 談

明十二日에 約一週間豫定으로 東上할터이다 今回東上目的은 天機를 奉伺하며 此時局에 就하야 朝鮮의 狀況과 內鮮一體를 中心으로한 民心의 動向及 今後에對한 施政方針과 政策을 上奏하기爲하야 上京하는것이다。따라서 本人도本目的을遂行할수잇슬만한 最少限度期間을

英勞働組合도 日貨排斥企圖

【倫敦十日發同盟】英國의 日貨排斥運動은 最近에 濃着그勢力을 發揮하게되야 七十萬의 會員을가진 英國消費組合은 全國支部에 檄을날려 日貨不買를 指令하엿다 이와同時에 英國勞働組合會議首腦는 十日政府에 對하야 日貨輸入禁止要請問題에 對하야 協議를 하엿는데 當日은 最後的決定을 보게되지못하엿다 英國勞働組合은 그態度와 見解를 來十五日 부다페스트府에서開催되는 國際勞働組合會議에 表示하야 歐洲大陸의 勞働組合에 傳達하기로 決定하엿다

全米國勞働團體가 支那人救濟委員會

【華盛頓十日發同盟】米國勞働總同盟副會長 매듀·윌氏는 「支那人民의勇敢과 忍耐를稱讚하기爲하야」서라고하고 윌氏自身이會長이되야 全米勞働團體百團體를 中心으로 새로 支那人民救濟委員會를 組織할것을 十日에 發表하엿다

英消費組合
日貨不買를決定斷行 (會員七十萬)
會員八百萬都賣組合에도追從勸告
代用可能品에限하야

【倫敦十日發同盟】會員七十萬을 가진 英國消費組合은 各方面의 要求에 基하야 마츰내 日貨보이콧트를 斷行하기로 決定하고 十日에 全會員에게 檄을 날려 代用品을 使用할수잇는 日本商品의 不買를 指令하엿다 또 同組合은 會員八百萬을 가진 都賣組合에 對하야 同樣으로 日貨보이콧트의 手段을 採用하도록 注意를 喚起하엿는데 右에對하야 組合當局은 左와 가티말하엿다

我等은 日本軍의 支那婦女子에對한 無差別的爆擊에 憤慨하고잇다 我等은 日本을 膺懲하는 意味로 排日貨의 方針을 決定함에 이르럿는데 同時에 이든外相크란보른外務次官에 對하야 我等의 情意를 十七日부터 열리는 聯盟理事會의 席上에서 傳하야 주도록 文書로 依賴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十一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五十分에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近衛首相以下 全閣僚가 出席하야 爲先 木戶文相으로부터 靑年學校義務制에關한原案의 說明이 잇고 이에對하야 杉山陸相으로부터 補足的說明을 加하야 原案대로 決定하고 다시陸相으로부터 兵役法中改正件을 提案하야 同樣으로 決定하고 最後에賀屋藏相으로부터 今年度의 財政豫想에對하야 詳細說明하고 이豫想下에 各閣僚와도 國策遂行을 順調케하기 爲하야 充分히 協力하여달라고 要望하고 正午에散會하엿다

定例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十一日午前十時十五分부터 第三會議室에서開催하고 南總督으로부터 去八日의 臨時局長會議에서 披瀝한 時局에 處할 庶政의 大綱에 關하야 다시 그意義를 强調하고 明十二日에 渡東하므로 東上의 要務에 對하야 傳하바잇섯다 「今回의 渡東은 政務協議를 爲한것으로 그日程은 最少限度에 그치다」는 旨를 述하고 同卅五分에 散會하엿다

人事·集會

◀高田知一郞氏(前京城日報社長) 退任人事次來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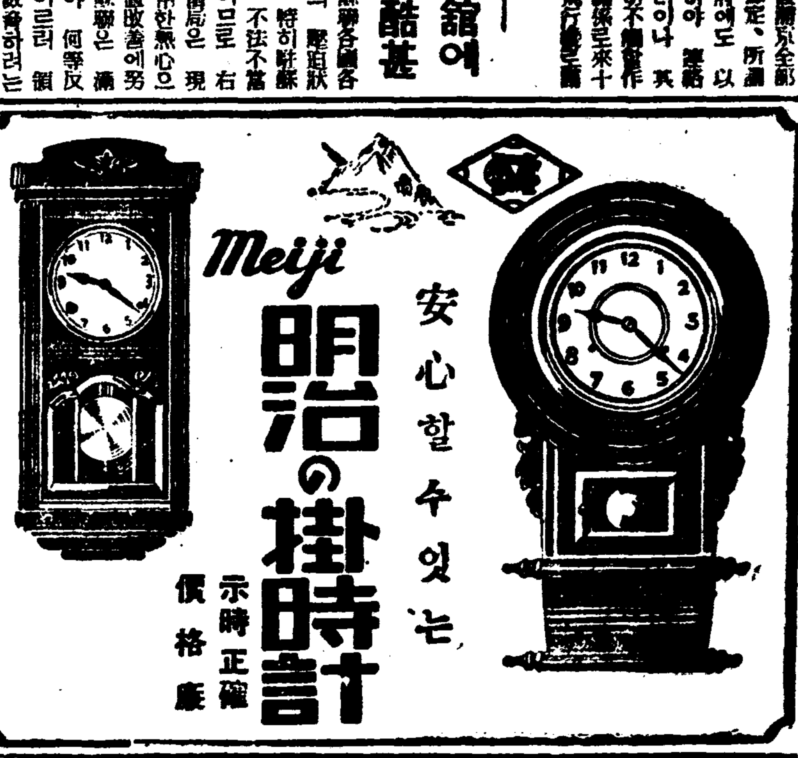
辭令

一月十日附發令(朝鮮總督府)

(江原道江陵郡)總督府郡守 鄭然基
任總督府全羅北道參與官(四等) 總督府江原道部屬兼總督府專賣局屬 尹錫中
任總督府郡守(七等)
命江原道麟蹄郡在勤 (原州郡)總督府郡守 崔晩達
命江原道江陵郡在勤 (金化郡) 同 李弼國
命江原道原州郡在勤 (橫城郡) 同 李玄載
命江原道金化郡在勤 (麟蹄郡) 同 黃桓根
命江原道橫城郡在勤
任總督府郡守(七等) 總督府咸鏡南道府屬 羽野丸
命咸鏡南道咸州郡在勤
總督府全羅北道參與官 李鍾殷
依願免本官(各通) 總督府郡守 堀平吉

八面鋒

◇英國勞働黨系로 七十萬人을 擁한 消費組合은 日貨不買를 可決하고、
◇八百萬을 擁한 卸賣組合에 對하야 亦是 日貨不買를 慫慂。
◇對外貿易의 三分바게 占치못한 日本商品이 打擊바들 일은 적으나、
◇이런 일이 업는것만은 못해。
◇日英間의 感情은 더 惡化할뿐。
◇京城市內 學齡兒童으로 收容못될 兒童이 三千五百이라고。
◇年年히 兒童은 만하지것만 學校는 그만치 못느니 不足이 잇슬것은 當然。
◇大京城府에 未就學兒童이만타는것은 恥辱。應急方法으로라도 收容이 可。



安心할수잇는 Meiji 明治の掛時計
時正確 價格廉

生徒募集
東亞自動車學校
奉天商埠地三經路八緯路一六四
運轉技術正確養成、學者低廉、就職斡旋、寄宿舍完備、實習車完備、教材豐富
◇規則書請求次第送呈(要三錢切手)

流行歌 알뜰한 당신 黃琴心
新民謠 漢陽은千里遠程
一枚金一圓拾錢
빅타- 靑盤

▲五大名藥
一、崔氏秘傳膏
一、胎養調經湯
一、ネツピリン
一、滅癬水其他
各種製藥本舖

救急靈藥 天寶水 (텬보수)
非常時家庭常備
식상, 토사, 곽란, 구기, 주취, 두통, 기울, 중서, 중한, 수토불복, 선차현훈 흉복통에특효。
▲代理店特約店、配置賣藥大募集
商報請求次第無代進呈
(天寶水) 定價 三圓·五圓
發賣元 平壤永生堂製藥社
平壤府新岩里(電話二〇六七番) 振替京城一四一四八番

パゴタ公園東門側
科齒
京城樂園町一四六 電·光③三〇二〇番
大京齒科醫院
院長 金喆庸
前世醫專齒科技工部主任 李龍基
分院·京元線議政府驛前·擔任醫師 蔡禧銘

防寒 純毛羅紗製品大投賣

兩前型 寸法·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三種 黑色·紺色·二種·一枚價
上製品 紺·黑メルトン新毛裏付……九圓
特製品 黑生地厚地ラシャ洋朱子裏付……十三圓三十錢
高級品 極上ベロアー特製朱子裏付……十九圓三十錢

片前型オーバ 寸法·二尺八寸·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三種 黑色·紺色·二種·一枚價
上製品 紺黑メルトン新毛裏付……八圓五十錢
特製品 黑生地厚地ラシャ洋朱子裏付……十二圓八十錢
高級品 極上ベロアー紺黑特製朱子裏付……十八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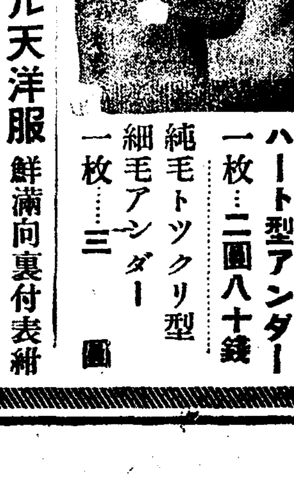
高級霜降羅紗オーバ(一着値)
寸法……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二尺四種
上製品 ベロアー厚地茶鼠霜降ラシャ絹柄ゼツク總裏付……十四圓五十錢
特製品 高級ベロアー厚地ラシャ霜降茶鼠袖裏絹ゼツク……十七圓九十錢
高級品 高級ベロアー霜降朱子裏茶鼠高級紳士用……廿四圓八十錢

冬向サージ三ツ揃(一着値)
五六〇號 表黑純毛新毛裏三ツ揃 十二圓八十錢
五六二號 表黑純毛洋朱子裏三ツ揃 十四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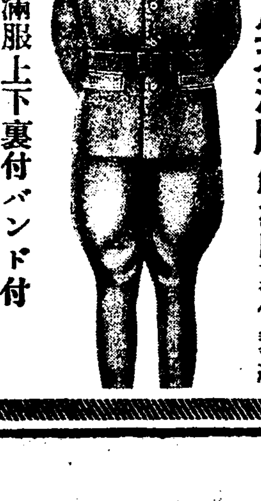
仕立入念 流行 立縞ウーステッド背廣三ツ揃
五五三號 立縞ウーステッド地裏沙天裏付 一着 十七圓八十錢
大中小寸……同値

防寒鬼エスター

八分毛織 防寒用太糸 鬼スエーター 一枚 三圓九十錢



純毛極細 ハート型アンダー 一枚…二圓八十錢
純毛トツクリ型 細毛アンダー 一枚…三圓



防寒コール天洋服 鮮滿向裏付表緋
コール天鮮滿服上下裏付バンド付 上衣ダブル、下乘馬ズボン 一着 四圓九十五錢

御注文は……御手紙で御申込下さい御便宜上代金引替で送荷す
品替返金……不向の節は品替返金自由絶對御迷惑は掛けません
送料……は御買主負擔のこと商店負擔は當店負擔のこと

御註文は
名古屋市東區東魚町三 近藤商店通信部
振替名古屋一七二八〇番·電話東④九〇二番

城大、各官專出身의 就職에優先權認定
今春卒業生은四百三十六名

신년도부터총독부에서는 경성제국대학과 조선내각전문학교졸업생의 대다수는 조선내거주자의자제인관계로 각각조선에서 취직을희망하고잇스며 또 동대학과전문학교설립의 목적취지로보드래도 되도록 조선내에서 각각그적소를 엇도록하는것이 극히긴요한것인데 종래 위정각관청급교원채용에 내지학교졸업생을 다수채용하든경향도잇스며 매년미취직자가 증가하야 각방면에 영향되는바 막대하므로 명년도신규채용자중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선내의 내선인졸업을 타박사람보다 우선권을주어 채용하도록 십일일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으로부터 각국장、각도지사、각소속관서장에 통첩을 발하엿다 그리고 금춘졸업예정수는 좌기와갓다

▲城大 七四名 法學科四一 哲學科八 史學科八 文學科一七 ▲法專 六九名 ▲醫專 七七名 ▲高工 六一名 紡織科一四 應用化學一三 土木一七 鑛業九 鑛山九 ▲高農 六一名 農學科三七 林學科二四 ▲高商 九二名

府內各町會를整理 半數로合同計畫
府補助費도增額人件費負擔
京城府當局統制强化策內容

최근 경성의 각정회(町會)가 그기능에잇서서나 그내용진용에 잇서서나 그전보다 현저하게충실하게되여 정내의 제반사업을 자못 잘 부도더가고잇는데 경성부내 이백오십구정에 현재이백사십정회가 기존하고잇스나 그중에는 재정곤난으로 그기능을 발휘하지못하는정회가 만히잇슴에비추어 경성부에서는 오히려 이정회의 적당하게 합동하야그 수를주리고 그내용을충실히 하려고 방금정회통제강화계획을세우고 그구체적안을 고구중이다 그제안의내용으로는 현재정회중 약소정회를 그린접한정회에 합병시켜 이를 반감하고 따라서 부보조금도 지금까지의 연액백이십원을 이배 또는 삼배로증액하여주며 또 각정회에 유급사무원을두고 그사무비도 부에서 부담한다는것이다 이합동계획이멀지안어 실현될것인데 이에따라 합동당하는정회의 역원들은 명예직이나마 여태까지의동내의총대의직이 업서질것으로섭섭해서 시내각정회에서는 이합동에 려사잇는 자기정회를 업새이지안코저 그자존책(自存策)에 분주활동을하고잇다

金奉岩 不日間送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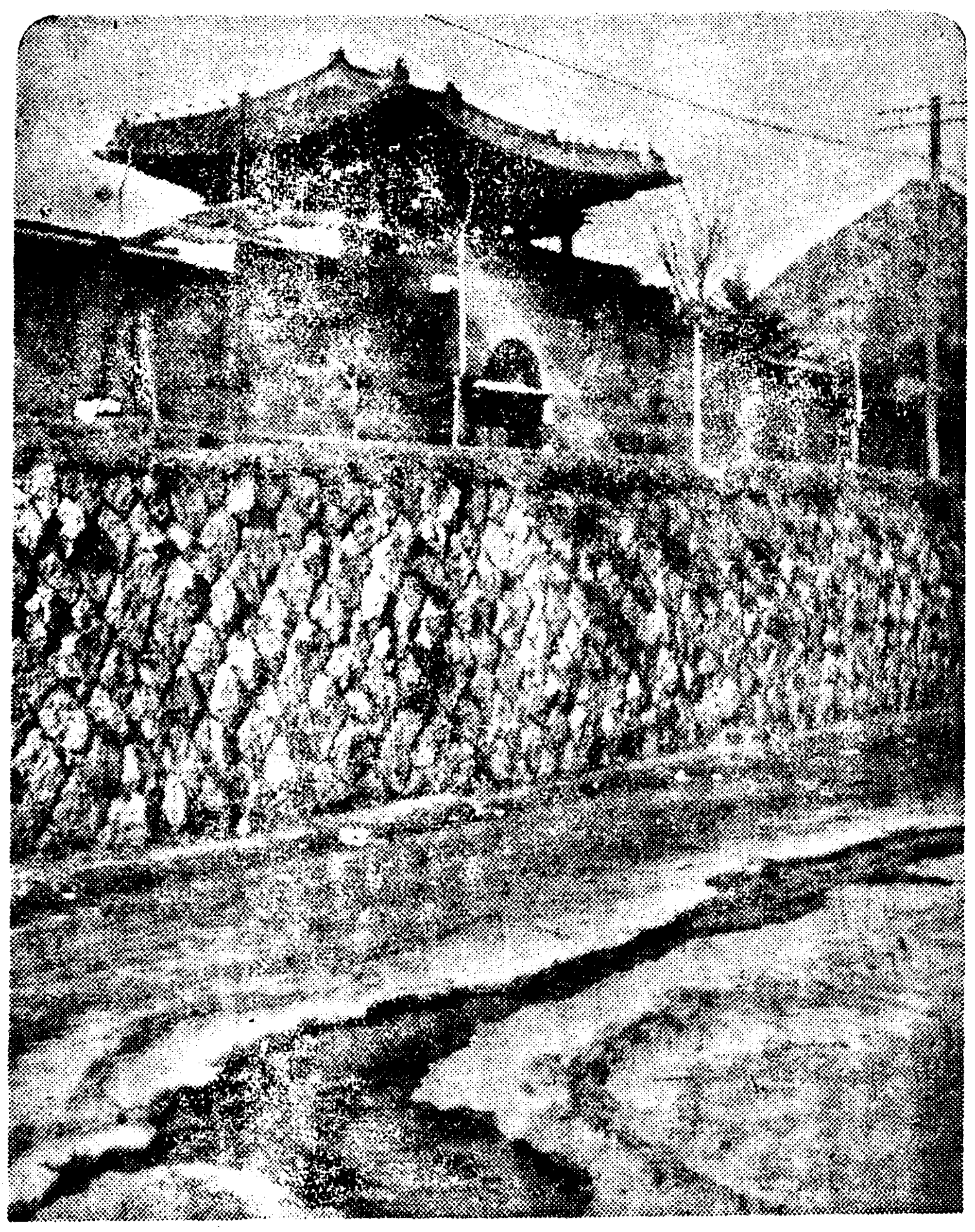
현직차장으로 현종중의 식산은행돈 이만원을훔처내채 팔년이란긴동안시치미를떼고 그돈으로사업까지 경영하야 만흔축재까지한 세칭『이만원사건』의범인 김봉암(金奉岩)은 그동안경기도경찰부형사과에서 계속취조중이든바 얼마전 동과주임 하가(下家)경부가 그의진성진부옥정(城津府旭町)삼백팔십삼번지와 그가훔친돈으로 정어리공장을경영하고잇는 차호(遮湖)를실지조사하고 십일일 도라왓는데 정어리공장은 륙천여평에 달하는큰공장으로 시끼오만원이상에 달하는 대규모의것이며 그의집도 일개봉급생활자로는 도저히 꿈도꿀수업는 호화로운것에 깜작놀랏다고한다 동과에서는 현지조사의새사실을가지고 다시엄중한취조를 시작하엿는데 일단락이되는대로 불일간송국하기로 되엿다

파네이號에同情金

부외무부에 십일일북선저려호반(抗遼湖畔)의 한어옹(漁翁)이라고는 편지한통이왓는데 그내용을보건대 미함『파네이』호사건에 대하야 일본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동정을마지안는다고하야 현금삼십원을 동봉하여 잇섯는데 외무부에서는 곳경성미국총령사에 이를전하엿다 그런고이외분금으로는 충남청양(青陽)애국부인회에서도 십오원이왓는데 당국은 크게감격하고잇다

臺灣人自殺(未遂)

지난사일부터 부내 봉래정(蓬萊町)일정목 대흥려관(大興旅館)에묵고잇는 대만인(臺灣人)정복전(鄭福田)(二八)은 십일일 오전 여덟시쯤 려관부엌에서 식도로 배를 막가르려고할지음에 그곳 하녀가 발견하고 위기일발 이것을 제지할수잇섯다는데 그는 『하르빈』으로 가든중 려비가 부족하야 적기려관에 묵고 본적지인 대남시빈정(臺南市濱町) 그의 어머니에게 루차송금(送金)을 청하얏스나 소식이 업 … 술뿐만아니라 려관주인에게는 경정 일원각으로 숙박소개에 그가리 자살하려든것이라고 하며 … 이라고한다



들려오는"봄의跫音"
氷點以上의暖候
오늘正午에四度一
그러나치위는다시게속된다

지난조하룻날이 잠간따스하다가 그이후 열흘동안이나 혹한이게속되여 이번겨울에 처음가는 추이라고들하엿는데 십일오후부터 슬그머니 수은주가 오르기시작하야 드디어 빙점(氷點)을돌파하야 십일최고온도가삼도오를보히고 십일일정오에는사도일이라는 따뜻한 사온(四溫)날세로 변하여간밤에 고요히내린 길우의눈과어름이 녹기시작하야 거리는 봄은녹드시 질어젓다 이러케 따뜻한 날세는소청도(小淸島)의 북쪽부근과 성진(城津)부근에 적은저기압이생겨서 불련속선(不連續線)을 긋고잇기때문으로 나온것인데 이것이 방금동쪽으로 빠저나가고잇스니까 이 저기압을 쪼차서 그동안 몽고와 만주에 웅거하고잇든 우세한 고기압이내려올것이므로 십일일밤부터 경성지방은 또 추어저서 사온날세도 일장의 춘몽으로 사라지고 여전히 겨울추이가 계속되리라고한다 (사진은 봄녹더지는개천)

新正―災厄三重奏!
揮發油箱子에引火 要時間十三名死傷
絕對의禁物!乘車中의吸煙
長興自動車火災事件詳報

【長興】상보=지난팔일오후네시 장흥발 대덕행(大德行)전남자동차일백구십호 운전수 신동하(申東河)의 운전으로 안량면수양리(安良面水養里)존아플 진행하는중에 자동차에 불이나서 승객중 여섯명이 무참하게 불에타죽고 일곱명이 부상을 당하엿는데 회재의 원인을들어보면그 자동차안에 휘발유상자를 실엇섯는데 남면덕암리(南面德岩里) 최명식(崔明植)의 담배부치는불이떨어지자 별안간 차내에 불이부텃슴으로 운전수는 뛰어내리고 얼마큼 가다가 전복이되여 륙명은 불에타서 사망하엿고 칠명은 류리창을 깨트리고 나왓다는데 사망자와 부상자의 씨명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死亡者住所氏名

南面東院里 金麟植 古邑金融組合書記 李鋼伊―李鋼伊의長男 永成 寶城郡會泉面鳳岡里 丁文玉 康津郡兵營面 韓相玉

◇負傷者住所氏名

南面印岩里 金聲煥의妻 夫山面枝川里 金采洙 長興面東洞里 呂南鉉 南 面德岩里 崔明植 長平面登村里 申炳均 長東面霞山里 鄭瑞永 南 面上金里 李大成 咸北會寧 李[illegible]三(死亡者李鋼伊의弟妹)

新婚의甘夢도草露
運轉手外一名卽死
城津에列車"오토바이"衝突事件

【城津】정초기분이 아직도사려지지안은구일에 오ー트바이가진행하든열차와 충돌하야 운전수와 조수량명이즉사한 끔직한사건이생겻다.

구일정오 시내본정(本町)에서 식료품(食料品)도매상을 경영하는환금본점(丸金本店)삼륜오ー트바이(다이하쓰扁號제一〇八호)가 쌍포동(雙浦洞)가는 파자 식료품을싯고 운전수성진욱정(城津旭町)한순호(咸順浩)(二〇)가 조수 시내행정(幸町)박동하(朴東夏)(二七)를태워가지고 목러지 쌍포동(雙浦洞)에가서 짐을부리고 점기랑명이 날따라 공교롭게도 한시간이나지체하야 점심을 맛친후 상점으로 도라오라고 쌍포철도건널목(雙浦踏切)을 지나가랴할즈음 때마츰 두시오십분 성진(城津)을출발하야 명천(明川)으로가는 제이백삼십구호 혼합렬차가 『쌍포건널』을지나 상당한 속력으로달리는중 압허잇는 오ー트바이를 발견하고 경적과아울너 급정거를 하엿스나 이고은상당한 경사(傾斜)가 되여잇슴으로 밋치 못하야 원산기점(元山起點)삼백오십구키로지점에서 그만오ー트빠이와충돌되여 운전수 함순호(咸順浩)는 전방일백삼십삼미돌에서 즉사하고 또한 조수박동하(朴東夏)는 이백미돌이나 떨러나가 무참하게도 즉사하야 현장일대는 피야말로 서정말로를이거참한 광경을 일우엇스며 운전수 함순호(咸順浩)는 평시에 근무가착실하야 주인에게 총애를 밧든터로 약이수일전에 결혼하여신혼에단꿈도 순간에이러한 무참한 죽엄을 하엿다하는데 가정에서 불의에 이급보를밧은 안해와 가족들이 현장에달려와 통곡하는 장면은 보는사람으로하여금 눈물을흘니게 하엿스며시체는 성진서와 검사국의 현장림검이 잇슨후가족들에게 인도하엿다한다 (사진은 현장의부서진 오ー토바이)

京元線에서 列車自動車衝突

십일밤열시삼십오분경 부내종로오정목 경춘(京春)철도회사 회물자동차운전수 백상길(白相吉)(二一)이가 회사원두명을 태우고 금곡(金谷)에서 서울로오든도중 회경정(徽慶町)삼백십구번지압 경원선건목에서 원산으로가는 오백오번렬차와충돌하야자동차는 일립자되는 언덕에서떠러저 대파를하엿스나 기적적으로 전기운전수가 경상을 입엇슬뿐이다

一家族四名死傷
大邱府內火災慘事

【大邱】대구금정(錦町)일정목삼번지 금정광산사무소 (金井鑛山事務所) 안등장치(安藤長治)방에서 구일오후여섯시반쯤에 발화되여삽시간에 불길은사방에 퍼저서 불빠다를이루어 일동출전소케하고 한시간만에 소방수의 활동으로겨우 진화되엿는데 어중에서 거처하고잇든 전가족오명중 네명은화상을입고 방금원정월지병원(越智病院)에 입원치료중이며 안등장치의 둘재딸신자(信子)(三)는 구제할길이 업서 무참히 타죽엇다고한다 그런데 손해맛 발화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한다

"담배불"이禍根!
今朝 漢江通에大火

십일일오전구시삼십분경 부내 한강통(漢江通)십륙번지 자회상업동원(勝原鉉)창고에서 발화하야 때마츰불어오는바람에 불길은 곳이웃전축의리정만수가(韓淸洞)에번러 동가룡반소시킨 다음 이웃촌전정일(村田定一)집을 전소시키고 야촌신태랑(野村信太郞)집을 반소시킨 다음 즐동중의소방조원의 노력으로 동십시십오분경에 겨우진화하엿는데 판명된손해액은 일만오천여원이상에 달한다는바 원인은창고에버린 담배불에서 옆어난실화인듯하다고하나 의심스러운점이잇서서 방금동서원들이조사중이라고한다

前"올림픽"選手가 十一萬圓을橫領
高飛遠走中釜山棧橋서被逮
慶大出身、大連德太公司支配人三木義雄

【釜山支局電話】 대련시 산현통(大連市山縣通)오정목 덕태공사(德太公司)지배인 삼목의웅(三木義雄)(三四)이가 십일일아침에 회사의 돈 십이만사천원을 횡령하야 비행기로 대련을 도망하야 경성으로와서 그날오후열한시오분 일본내지로 건너갈 목적으로 부산잔교(棧橋)에 다다른것을 수배에 의하야 부산서원에게 검거되여 방금 엄중한 취조를밧고잇는중인데 그는 입을닷고 자백을안코 그는 일트겟스나 소지금은 현재삼백원밧게 발견되지안헛다 이삼일중에 대련으로호송하리라고하는데 전기삼목은 경응(慶應)대학출신으로 그전에는『스포ー츠맨』으로서 특히『허들레ー스』의 일본기록보지자로서 세계『올림픽』에까지 나갓든선수이엇다고한다

入學詐欺騷動

입학시험때를 노리는 맹랑한 자가 종로서에 검거되엿다 종로오정목 사백오십번지 구두수선업 박인환(朴仁煥)(三二)은 얼마전 원남정(苑南町) 이백사십륙번지 조헌구(趙憲九)(二七)라는소년과 알게된것을 기회로 중등학교 선생들에게 친한사람이만히잇스니 힘하는 학교에들도록 하야준다는 감언리설로 그학생이가지고『스케ー트』를빌려 잡혀먹은외에 가진수단으로 어린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터러먹은 여죄가만허 동서에서는 계속추궁하고잇다

大金橫領코遠走

황해도서흥(瑞興)산업조합출납게서기 자기오(金善又)(二二)와 년인월경부터 자기의지인을 의용하야 장부에 거짓기입을하야 의학관매득바든 작부대금중 일천삼백여원을 횡령소비한것이엽마전열로되자 증적을 감추어버러 경성방면으로 도망가잇스리이잇다는 소만경찰의 수배에의하야 시내각서에서 범인을엄탐중이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蒙古로부터 滿洲에퍼지고 本州及南朝鮮도 더욱氣壓이놉다 小靑島 城津沿岸에는 小低氣壓이잇서 不連續線을 伴하고갓치東進하고잇다 滿洲는개이고 朝鮮과國境內陸 京仁地方은 小雪이며 그外에는 흐리고잇다 日本內地方面은 中部以北의 日本海沿岸에 處處에 小雪이잇스며 그外에는 날세가조코 南西諸島 附近은흐리고 處所에따라 小雪이오고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개엿다흐렷다하며 추어진다 明日은 北西의바람이잇고 개엿다추어지며 京畿道全區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三度五
同 最低 零下十度四
今朝最低 零下一度七
今日正午 四度一

道立工業學校
今春부터開校(豫定)
方今臨時校舍物色中

경기도에서는 사변관계기타로 약진에 약진을 더하고잇는 조선공업계가 요구하는 기술자를 양성할목적으로 도립공업학교(道立工業學校)신설계획을세우고잇다함은 기보한바로 이미 예산까지 계상하엿슴으로 그정식통과를 기둘려 오는새학기부터개교할 예정으로지금 그준비를바쁘게하고잇다 동교는 중등정도오개년제로파엽 전기 토목 응용화학의 네파로 한파에 삼십명내지사십명을 수용할예정으로도 학무과에서는 지금 림시교사를 물색중이다

동교는 신설비팔십만원중 절반은 국고보조를밧기로하고 지금 대장성에서 사정중이며 남어지 이십만원은 도비로하고 이십만원은 일반의기부를 바들계획이며 위선 광산、전기、토목、응용화학의 네파를 두어한파에 삼십명내지 오십명을 수용할예정이며 명년도에두파、명후년에도두파를 증설하는 삼개년계획으로 동교 여덟파의내용의 충실한 공업학교를 만든다는것이다

原因을몰을自殺

전북부안군부안면내(扶安面)사는 서상희(徐相喜)(三〇)는 십일밤여섯시쯤되여 전부터아는 려서정(瑞西町)백구십오번지의오호 김봉완(金奉完)의 집에가서 고민하기 시작하엿슴으로 곳부근 의사의 응급치료를바덧스나 무슨독을마섯는지 판명되지안은채 동여덟시쯤되여 드디어 죽고마럿는데 유서도업서 원인을알수업다

스포ー츠欄
都市對抗의覇者와 江界英實入京
一行은覇氣滿面

今씨ー즌氷上界의 二大籠球版인白物俱樂部主催의 第大回全朝鮮中等學校氷上競技選手權大會와 全朝鮮都市對抗氷上戰은來十五日과 十六日로 迫頭하야各地方에서 續々入京할터인데 第一着으로 中等氷上制霸의 自信充滿한 北國의 江界英實學校軍과 都市對抗에 連二年優勝한江界代表팀一行十名은十一日午前七時卅五分 京城驛着列車로入京하엿다 一行은太平通一丁目 第三旅館에서 行李를풀고 이날午前中에人事次로本社를訪問한後 午後부터 淸凉里링크에서 猛練習을 開始하엿다

▲英實學校陣容=마네저金成吉 監督金成鶴 主將金河吉 選手金鳳鎭 金聖濟 尹永杰 李花實 ▲都市對抗江界代表=監督金載鉉 主將金用濟 選手劉仁順 金河吉 金聖濟 尹永杰 金鳳鎭

(寫眞은 本社來訪한江界英實學校軍과 都市對抗江界代表一行)

日大四年連覇
東京·箱根間驛傳

報知新聞社主催의 第十九回大學專門學校 東京…箱根間驛傳競走는 지난八、九兩日間에 擧行한바 參加한 十二校의接戰끄테日本大學팀이 連四年制霸하엿다 그리고二着明大는 選手資格問題를 이르켜 失格되엿다

1日大팀十二時間四十分十三秒 2明大팀十二時間四十一分三十八秒 3專修大팀 十三時間十八分十二秒 4文理大팀十三時間四十三分五十秒 5立敎팀十三時間四十四分二十七秒 6中央팀

早大籠球一敗

早大對『아레네오』의 籠球戰은 九日『마닐라』에서 擧行한바 卅三對卅二로 早大軍이 惜敗하야 比島에遠征하야 처음으로 敗退하엿다 그리고 次回에는『센트·토마스』팀과 對戰할 豫定이라한다

아레네오(比島)33 (19―14 16―16) 33早大

淋菌안치제과칼숍及利尿殺菌劑의並用藥으로서急慢性淋疾並睾丸炎淋毒性關節炎의治療에가장好評입니다

二〇錠…一〇錠 五〇錢

東京·大阪 田邊商店

ネオカルゴーノゲン
네오가루고―노겡

家具 事務用椅子卓子書籍 有特價 安販賣 京城本町三丁目 電話本局②五〇九一 關根商會

募集 男女外務社員 固定給有、保證人要 每日午後本人面談 京城府光化門通一三六 朝鮮鑛業時代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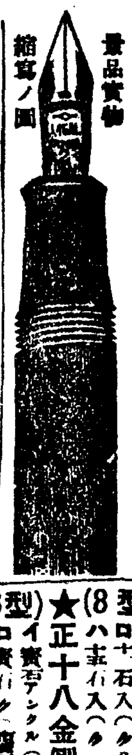
朝報案內

恩給 年金 資金融通 京城鍾路二丁目八 永保グリル內 金融商會 電話(光)六三九番

연주창 신발견!! 京城藥局 淸化丸

早漏防止 丸腎補導淸 國境大藥房

性器強大藥



容陣大のシャウコイセ 見よ躍進
カタログ 進呈 景品
切手參錢同封御申込次第直に御送附申上ます
五圓以上品御註文の方へ弊社發賣のT.M萬年筆正價壹圓八十錢の品一本宛もれなく進呈す
註文方法…代引註文ハ內金トシテ註文高三割以上御送金願マス。內金ナキ代引註文ハ一切發送セズ。前金註文ハ送料不要。代引註文ハ送料四十七錢也 註文並御負擔ノ事 送金ハ小爲替又ハ振替東京一五七九四一番セイコウシャ營業所宛御拂込下さい
セイコウシャ營業所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十六 振替口座東京一五七九四一番
同業者整理品引受處分大特賣中 特別原價提供大賣出
世界的標準時計 ウオルサム 瑞西製 高級腕卷 高級懷中 最新線流型 【トラステー・パンタ↑】

코물나고 막힌데

鼻病解說 東京市芝區新佐久間町二ノ二 確報堂藥品部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仁川支局電話開通 電二九〇番

小兒用 코데스 百日咳에

小兒用코데스 大阪·東京 持田商店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龍藏氏
醫學博士 吉田義治氏
醫學博士 山中崔之氏
醫學博士 豊田正達氏
推奨

한방울너흐니
아이 시원도해!

大學目藥

아프거나·쓰리지안코·爽快하게잘듯는

대학목약

適應症

○충혈안질 ○ㅁ目 ○淚眼 ○도라홈 ○血目 ○疲勞眼 ○다락기 ○麥粒腫 ○結膜炎 ○쑤시는눈 ○霞目 ○흐린눈 ○光線眼炎 ○ㅁ目 ○打目 ○상한눈 ○삽눈 ○진안질

定價

人蔘入 龍甲케-스付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눈케-스一個入) 五十錢
補充用特大瓶(케-스付同) 一圓

케-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得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大學洗眼藥 (따로잇슬경우에는)
十錠 十錢
廿一錠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發行所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體千兩 目九百兩

눈의治療에힘쓰라

眼疾原因은거의全部가 不潔과 營養不良에잇습니다、塵埃와 煤煙과 때에더러운얼골과 눈을씻지안커나 더러운손으로 눈을문지르거나해서 眼疾이생깁니다、太陽의强한紫外線과 컴컴한電燈下에서 일을하거나 細微한文字를읽거나하는일로해서도 눈은 疲勞하야弱해집니다、눈이붉어지거나 눈곱이끼거나 좀아푸거나할때에 곳治療를加하면 病이되지안코말것이라도 治療를加하지안코 버려두는故로 病이되는것이며 病이된뒤에는 治療가길게끄는것입니다

眞正한 治療法과

눈을强하고곱게하는法

眼疾의眞正한治療法은 于先大學洗眼藥(目藥에添付)一錠을곱부半分의 熱湯에녹여서 시킨뒤에 까-제에적시어 눈의안팟을 輕하게몃번이고 씻습니다、다음에大學目藥二三滴을 點眼합니다、이것을 每日三回 꾸준히 繼續하면 지금까지 좀처럼 낫지안튼 眼疾도顯著히 快差해갑니다。또、지금은 눈이 나뿌지안트래도 每日豫防해두면 眼疾이되지안코맙니다、그것은 每朝洗面後에大學目藥을一二滴點眼하면 고만입니다、아츰엔눈곱이끼고해서 第一不潔할때오니 每朝點眼하시면 언제나 强하고 고운눈을保有할수잇습니다、特히 婦人의美眼法으로는 이것이 第一입니다。

大學은 權威잇는

世界的高級眼科藥

大學은眼科醫學의泰斗五大博士의推奬하시는바 治療力이極히强한目藥으로殺菌、防腐、收斂의効果와專賣特許製劑우르비올레긴이라는 紫外線防止藥까지配劑되엿는故로 단하가지로實로左의세가지作用을가젓습니다。

一、眼疾을速히治癒하는힘
二、눈을아름다웁게하는힘
三、紫外線의害를防止하는힘

따라서眼疾이잇는분이쓰시면 速히回復하고、健眼하신분이쓰시면强한눈、고운눈이되고、老人이쓰시면視力이回復되고바다와山에서쓰면 紫外線의害를밧지안코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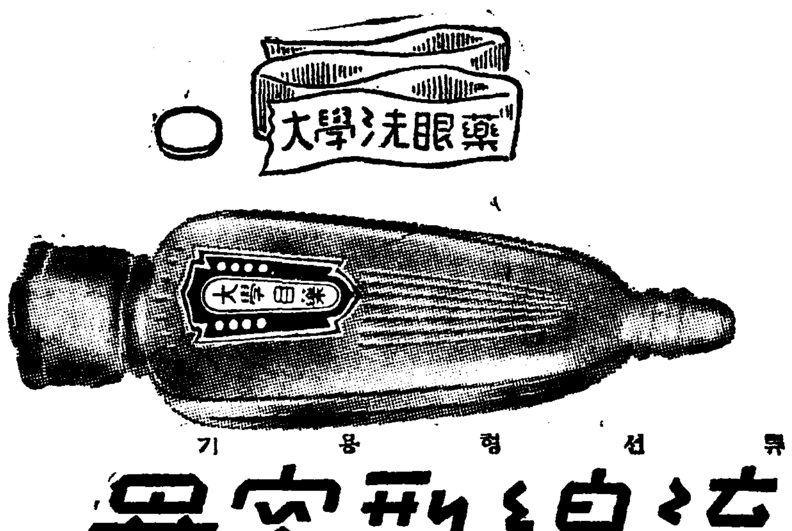
아이에겐小兒用大學目藥

大學目藥은조금도아푸거나쓰리지안코 써爽快한氣分을주는故로아이들에게쓸지라도괜찬습니다마는 十歲以下의小兒에게는 小兒의눈에맛게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습니다

硼酸보다나흔大學洗眼藥

大學洗眼藥은 最新殺菌藥너이보르미친을 主藥을삼은强力한 消毒力과治療力과 點眼藥의作用을돕는 効果가잇는洗眼藥입니다 大學獨特의創製品으로 完全消毒싸니-레프包裝을하야 大學目藥一瓶마다 添付하엿습니다 不足하실時는洗眼藥만의賣品도잇습니다

一瓶마다大學洗眼藥添附



류선형용기
流線型容器

스마-트하고便利한自動點眼容器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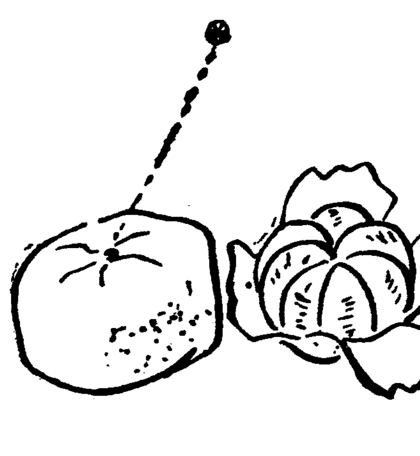
우리차지

아라마처보세요

까지안흔 귤을노코 그속에든·알맹이가 몃쪽인지 아라 내시겟습니까

꼭지에 떼진자리를보면 꼿문의처럼 하얀금이보히는데 이 금수효가 귤쪽수효와 갓습니다.

(효자골 장창수)



家庭

알고보면간단한 불로장수법의비결

단지꾸준히실행할성의문제

『푸레차』씨의씹는법

불노장수한다는것은 인류가생겨난옛날부터 지금까지에 누구나 바래서 마지안튼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의 불노장수법이란것이 생겨낫는데 이것을간단히 파하으로 요점을뽑하면

(가) 음식물에 영양학적(營養學的)주의를 게을리하지안흘것.

(나) 잘씹을것

(다) 모든행실을삼가히할것.

(라) 적당한운동과 일광욕바들것.

등의 네가지로 구별할수 잇습니다.

이게야 어듸신기한불노장수의비결이될것도업고 허구한날귀에 떡지가안도록듣던 위생학이야기가안이냐고 하실지도모릅니다.

다만 장수법의 핵심이라고할수잇는것은 이네가지를 빼지안코 장구한시일에 꾸준히 실행할수잇는 구든의지가 당신에게잇나업나하는것이문제입니다.

아모리 평범한사실이라도 이네가지를 실행하는힘이업스면 결국은장수할수업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네가지 조목의 하나 하나에대하야 상세하게말슴드릴지면도업스므로 푸렛챠의 음식씹는법을 이야기하겟습니다.

미국에 푸렛챠란는 큰장사치가 잇섯습니다.

돈이 넘우만허서 호사란호사는 다하고 고량진미에 파무처잇섯스므로 체중이이십오관이란 돈뚱보가 되여버렷습니다.

말하자면너무지 장년기에드러서 체중이는것은 근육이 돈뚱해지는것이아니고 기름기가 너무과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푸렛챠는 건강이말이못되여서 여러가지로 치료를해보앗스나 잘낫지안헛습니다 어떠케하면 조흘지 비관하고잇던차 사십구세때에 잘씹어먹으면 조타는말을듯고 그것을 실행해보앗습니다 어떠한 음식이던지 잘씹어서먹다가 혀바닥에남 것은 모다 배터버리도록하얏습니다

그가먹는 음식은 감자와 빵과 고기엿습니다. 그것을 모다합해서 서른입이 엿는데 이서른입을 이천오백번 씹어서먹는데 시간은 삼십분이걸리엿다고합니다

그러므로 분량은전의나꼿배가불럿스며 사개월뒤에는십구관으로 체중이줄엇습니다 다만피부에 주름살이생기엿스나 몸은퍽 건강하얏습니다

그러는가운데 점점고기보담야채식이 조화지고 술먹기가실허저서 심신이상쾌하고 피곤하질 안헛습니다.

제일에는 식량이 반으로 주러든것

제이는 고기반찬보다 나물반찬을 질기게된것

등의결과 나타낫는데 이것은 모다 영양학에 합치되는것입니다.

즉식물중에 단백질과지방이적어지고 나물속에만히드러잇는 소금과 비타민이증가한까닭에 신체가 튼튼해지는것입니다.

푸렛차의식량은 단백질사십오그램 지방삼십팔그램 함수탄소이백오십삼그램 카로리ㅣ一六〇六입니다.

그리고 변비되기쉬운사람은 창자욱에 독소가 채이는까닭에 일즉늙기쉽습니다

그리고 짜증을내기쉬운데 짜증은 뇌에급격히 혈액을 올리게되므로 수에 해롭습니다

흔히 홀몬이 젊어지는약이라고말하나 결국 홀몬기관의 성쇠는 영양과 기픈관계가 잇스므로 근본적인해결은 음식물의 섭취ㅣ즉 영양에 잇다고하야서 과언이 안입니다.

불로장수의 비결은 영양의 적당한지식에 이것을실행할 구든의지입니다.

치위에생기는병은 모두 한통속

감기에따르는폐염, 뇌막염, 성홍열

애기를잘보삷피시요

일간의 추위는 괴변스러웟습니다 추위는 지금부터가본격적입니다.

본래 양력정월이 제일치울때입니다.

그뿐아니라 초정에 음식먹기와 놀기에 여러가지로 무리가만히됩니다 어린이들은지금한창 탈이잘날때입니다.

요사이 어린이들의 병은 감기와 기관지염(氣管支炎) 성홍열(猩紅熱)등 그리고소화불량인데 이모든것이 서로관게가 잇스며 위태한병임으로 적절한 방법으로예방하며 경계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더욱 이러한 어린이병은 걸리자 곳빨리치료해 주지안흐면 안타까운 생명에영향되는일이 십상팔구 입니다.

소화불량은 어떠가지 소화가 잘되지 안흔것을 먹이던지 젓을불규측하게 먹이거나 영양장해(榮養障害)등으로 감기가되고 이것이 일종의 중독상태를 이르켜서 토하며 설사를 하고피부가창백하야지며 쇠약하야 경련등을 차게됩니다.

그뿐아니라 울기만하고잇서서기운이 말이못됩니다.

가벼울때는 첫파으로 토하고 설사를 하는정도에끗치나 대단할때는 발열하고 경련을 이르켜서 위험한상태에 빠지는것입니다

설사를 만히하야 뒤기가 업슬때는 집에서치료하라고 여러가지 조약을 쓰지말고의사에게 보이는것이조흡니다

특히 모유가부족되고 인공영양을 취하고잇는 갓난아이는 각별한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가튼 증세로 치울때 걸리기쉬운것은 성홍열입니다.

감기가들기 시작하면 소화가 잘되지안흔것은 물론 그밧게도 여러가지 병의원인이됩니다.

기침을하며 열이잇슬때는 음식에주의하고 소화가잘되며 영양이풍부한것을 조금식먹이도록 하십시요

감기가 걸리기쉬운기회는 겨울의낫잠과 이불을 조심해 더퍼주지안는것입니다.

발파머리의 보온이 고르지못하면 감기들기쉽습니다 그리고 주장외투이 감기를 들게하는것입니다.

낫잠잘때의 이불은 발치럼 조심하지안코 흔히 요한법한말고 아무러케나 제우는데 잇실로 이것이병이됩니다.

어린이들의 낫잠은 방잘처럼아조불결로 이불을 펴고 재우도록 하십시요.

갓난아이들의 강보는 저즌것을 더펴주지말고 마른것으로가라더펴주십시요

저즌두렝이를 그냥더펴주면 궁뎅이가 차서 나중에는입술이 자주빗으로 변해집니다. 감기가 잣칫하면페염이나 뇌막염을이르키기쉬우니 조심하십시요

어린아이를 알몸뚱이로업는것은 체온을 빼서서 감기에걸리기쉽습니다

가정메모

계란감별법

나온지 오래된 계란인지 간난계란인지 아라내는데는 십퍼센트의 소금물(소금하나에 물열의비례)에 계란을당거봅니다 그러면 새놈은 염호른누은채 가라안지만 오래된놈은 기리로떠

女子基靑主催 擲柶와歌鬪大會

一月十三日부터兩日間

本社學藝部後援으로開催

시내서대문정에 잇는 경성녀자기독교청년회에서는 해마다여는 척사대회와 가투대회를 금년에도 열게되엿습니다

척사대회는 금년이 열다섯재돌인데 이달열사흔날 가투대회는 금년이 열재번돌마지인데이달열나흔날에 모다서대문정일정목 삼십삼번지·경성녀자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게됩니다

이두가지대회는 조선일보사회예부가후원을 하게되엿스며 회비는 매인아페 삼십전으로열사흔날오정때까지 녀자기독교청년회로 신청하기바란다고합니다. 이대회에는 녀자외에는 참가할수업습니다

옷에뗀흙물

나드리옷에 흙이뛰엇슬 경우에는 황급히 구러서는 안됩니니 마음턱노코 마롭때롭기다려다 마르거든 흙을털고 나서먹는소다(重曹)를 물에다서 그물을 찍어서 문지르면 그자리가 감쪽가태집니다

쉿물빼는데

숫을새로사서 밥을짓든지 음식을복그면 쇠스물이 퍼리케드는수가 잇습니다 이경울이안드러다고하는데 좀처럼 걸이드러지지 안습니다 고구마를 비여너코 삶거나 밥을삶아내면상당히 효과를어들수잇습니다

집한채를 통채로훔처가

미국『코로라스』주의 웨센불룩에 핑장한절도사건이 일어낫습니다 보석반지나 돈지갑을훔처간것이아니라 크다란집한채를 그냥하로밤사이에 드러가버렷스니 핑장하지안습니까

이집은 굼쭉도굼고 방이네칸이며 마루부엌등 업는것이업는 큰집이엿답니다

불에타버린것도아니요 회오리바람에 불러간것도아니여서 도난게틀바든 경찰은 집을도적해간 졸도적을상으랴고 애를쓰나 아직단서를엇지못햇습니다 실로 미국과가리 희황하고 거창한이야기입니다.

主催 京城女子基督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오는十三日밤七時 第15回 女子擲柶大會 會費三十錢

오는十四日밤七時 第10回 女子歌鬪大會 會費三十錢

場所京城女子基督靑年會館

中篇小說 女人命令【17】

李善熙 作 崔根培 畵

別離 (十一)

유원이가 서울온지 임에여드레ㅣ 실로여드레란 동안이이제유원이와 숙채사이에 흘러다

그동안 유원이는 여전히 그행낭방—동이가튼 회사기요강에서 "암보니아까쓰"가 쉬새업시발산되고 맛아들이 추석날밥탐밧을한고 공원나무걸상에서 운명하든이야기를 쉽새업시짓거리는마나님이잇는 그러한방에서 또 쉬새업시 그네모진 들창구녁으로 밧가를 내다보앗다.

그리고 도숙채는 숙채대로학교에 다니고 요사히는 입학기시험을 치르기에 얼골까지 핼슥하게되고 그리고 오늘시험이끗나기를 기다려서 그는 하숙에와서보름동안 방학에 집으로도라갈 짐을 꾸리고 오후엔집으로 가지고갈 선사품을 사러진고개를 차대고햇다.

숙채는 저녁을먹고 바로 유원이잇는데로 차저갓다 다른식구들은 안에들어가서 아직도저녁들을 치르고잇는지 유원이혼자서 언제나 마찬가지로 그신문지로 바른 괴짝에 기대안저서 무슨생각에 잠겨잇다가숙채가 인끼척을하고 문을열엇건만 유원이는 몹씨 놀란모양이다.

『웬놀라섯서요? 제가 박게서선생님 게서요 하구 들어와든데…』

『아니 변명을안하셔도 숙채씨께 허물이 업습니다. 또제가 졸을랫스면 어떻습니까』

숙채는 자기가 문을열엇슬때 유원이가 어떠케 날카라운 표정을 한든것을 생각하고 불안햇다.

일측이 유원의 그우아한 얼플에서 그처럼 겁놀집어먹은구서운 눈을 본일이 업는까닭이다.

『오늘 시험이 다것낫서요?』

『네ㅣ그리고 오늘로 방학을햇서요.』

유원이는 자기도 몰르게 길게 한숨을쉬고 다시그궤짝에기대안저서 말이업다.

이따금 숙채가 헬끔 헬끔유원의 얼골에서 무엇을 차즐려고 도적질해보는 눈파마수치변 그는 빙그시 웃을뿐이다

이러케 두사람이 말이업는방안엔 물밋과 유난스레 휘하고 두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그리워저서 이떠금 약간 흔들리엿다

『숙채씨 넘우심심하시죠? 그럼 내 이약이 하나할까요?』

『무슨애긴데요?』

『만일에 말입니다. 내가 오늘밤이나 래일밤 갑작이 죽는다면 그때 숙채씬 어떠케하시겟습니까?』

『…………?』

숙채는 눈이휑ㅣ해서 유원이를바라보고 잇는데그눈이 어떠케크고 슬퍼지 유원이는 그만 꿈쌀을 찌프렷다.

『아니 무슨 갑작이 감상적인 공상을 만들어서 숙채씰 괴롭게할려는게 아니라……만일 뜻하지안흔때 지극히 어려운일을 당한다고하면 그러할때 숙채씨의태도—그게 염려된다는 말입니다.』

『글세요 지극히 어려운일—그런일을 당한대도 저는 녁녁히 익이고 나갈자신이잇는데요』

『고맙군요. 그럼그래야하지요. 위선 어떤일을 당한는지 넘우 절망에 빠지거나 넘우술퍼만할것이 아니라 그당한일에서 가장조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것입니다. 알아들으셧습니까』

『네—』

『그런데 내생각에는 숙채씨가 오늘밤으로 몬저 댁에 나려가섯스면 조켓는데……』

『웨요? 선생님은 안가시구요!』

『저는 한이틀후에 갓스면 조켓서요』

『그럼 저도 이틀후에 함께가실까요?』

『아니 안됩니다. 숙채씨 오늘밤으로 퍽떠나십시요. 방학이 메칠안되니까 머 가지고가실집이업겟군요』

『그래도 조금잇는데요』

『그동안에 멀 또무러가지고가십니까』

유원이는 숙채를 남으태듯이 놀겨보며 웃는다.

『그럼 아모래도 한숙엽 또갓다오서야겟군요. 아직 시간이 너넉하니까 곳 가서 집을가지고 오십시요.』

숙채는 마음이 내키지안흐나 유원이가 하는말이나 일엔 무조건하고 복종하는 버릇은 장차 연모야처가될 준비가아니라 좀 더다른의미에서다.

숙채는 유원의 섬회가튼 재촉에 한숙으로 집을가질러 장다름질첫다.

出版界淨化

尙壽進

二三年來에와서 우리 出版文化가 長足的으로 進步한것은 事實이며 또한 이事實은 우리文化人으로서 雙手를 드러 讚賀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나 出版文化의 發展이란 반드시 量으로서만 기뻐할일이아니라 그質에잇서서 向上을해야할것인同時에 또한 이러한 向上을 圖하자면 첫재 무엇보담 出版者의 人格과 良心과 見識이업시는 不可能할수업슬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이러한 出版文化의 發展하는 時勢와 潮流를 따라서 群少出版業者의 沒人格•非良心的行動이 跋扈하는 現象은 文化人으로서 가장 慨歎하지아니할수업는일이다。가령 例를든다면 原稿를 빌려다가 그原稿의 內容과는 얼토당토아니한 挑發的인 題目을 任意로 부치는 따위는 差置하다고하드래도 그보담 더重한일로는 執筆者에게 아모런交涉이나 承諾도업시 제마음대로 무슨出版을하는데 누구누구가 執筆者라고해서 名士들의 일홈을 冒頭羅列을하는데 그럴사 人選과 文選이 잘망이되니 이것은出版者의 沒人格 無見識의 暴露한것일뿐만아니라 이러한 行爲를 容認한다면 그罪責의밋치는 範圍를 우리는 넉넉히짐작할수잇는것이다。一班으로 全豹를알수잇다는말과 가티 벌서執筆者의 承諾부터 이러한 挾雜을하는者가 地方으로 도라다니면서 知名人士의 일홈을 팔아가지고 무슨 挾雜인들하지안리라고 누가 保證할것인가? 萬若 그러타면 累는 執筆者라고하는 人士들 自身에게만 밋치는것이아니라 그影響이 全域的으로 밋칠것이니 이것은 出版文化의 美名에 숨어서 가장 唾棄할 挾雜을하는 일이다。비록 法律로서 이러한 짓을 制裁할條文이 업다고하드래도 우리는 우리文化의 威信을擁護하기위해서 또는 우리出版文化의 眞正한 向上과 發展을위해서 이러한 現象을 排擊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新年劈頭부터 出版界淨化의 聲을 삼거니와 여기서 어느出版社이라는 일홈을 내여노치안는것은 그러한 挾雜的인 出版者의 反省이 하로밧비 잇기를 바라는때문이다。

學芸

趣味論

趣味와秩序와批評 (四)

崔載瑞

批評은 合理的說言이기때문이다 批評은 好不好의理由를 說明해야겟고 또趣味가 直覺裡에 거처온 比較와 辨別의過程을 合理的으로 例示하여야된다。그뿐만아니라 그合理化가 體系를이루어그사람全體의 人生觀과 關聯을가저야 하고 또世界의實在圖式와도 一秩序를가저야한다。

그러나 趣味가 批評의 出發點 乃至中核이되여잇다는事實엔 變함이업다。批評家自身의 告白如何를 不問하고 趣味가업시批評은 도대처成立되지못한다。趣味란 文學的批評의 本質을삼는 直覺的判斷力 그自體이니까。그러나 이러듯明白한事實이 것잣하면가리워지는 原因은 그趣味가 흔히偏狹한 個人的 趣味이기때문이다。

趣味가 敎養을떠나 單純히氣分的인 嗜好를따라形成될때 따라서 傳統的秩序의指導와 訓練을缺如할때 그것은 奇巧한個人的趣味에끈치고말어 아모런普遍性도엇지고만다。傳統的敎養이 個人에게줄수잇는 가장稀罕한선물은 趣味의加特力性이다。傳統은 個個人의主觀的嗜好로선 絕對로줄칠수업는 그自體의秩序와法則을가지고잇다。敎養人의趣味엔 人類體驗의 總決算인 叡智가드러잇다。따라서 그의判斷은 決코 偏狹한 個人的嗜好에 歪曲될이업다。

그러타고해서 우리는 文學批評에잇서서 趣味의役割을 過大視할것은못된다。十八世紀末 英國에잇서든 趣味派의批評은 이런過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그들은 더욱히 그代表者인 畵家레-놀드는 趣味를尊重하다못해 그것을 天才와同一視하얏고 理性과批評그自體라고까지 斷定하엿다。그러나 이것은 批評의 合理性을忘却한 謬論이다。

近來에와서 批評은 科學性을 獲得하기위하야 過激한運動을開始하얏다。所謂客觀的批評을爲務하는 이들의大部分은 趣味否認에서出發한다。그들은 批評을個人的趣味의 陷穽에서 건져내기위하야 純全히客觀的인 理論에다 그基準을求하얏다。이런企圖는 何必現代에만 잇는것이아니라 古代부터잇섯든것이다。中世紀의 스코라學的批評 十七世紀의古典的批評 現代의唯物論的批評은 모도다 그代表的存在이다 中世紀에잇서서 批評의基準은神學이엿고 十七世紀에잇서선 아리스토테레스의『詩學』이엿고現代에잇서선『資本論』이다。이들 客觀的批評家는 文學作品을 全然外部的인 敎義와法則에빗조여 明快한判決을내렷다。그러나 그批評의大部分이 文學을떠난 空疎한論爭에서 一步도나가지못하얏슴은 무슨까닭인가?

그들은 文學批評을 個人의文學的趣味에서 出發치안는데 그原因이잇다 그들은 文學批評의本質인 自己自身의 文學的趣味이라는過程을 쏙빼놋코 얼토당토안은데서 武器를빌려다가 作品을치려고한다。原來에 有力한武器가 잘만치면 莫大한效果를 낼수잇지만 이런奇効는 自己自身의 文學的趣味에서 出發하는 眞實로獨創的인 客觀的批評家에서만 볼수잇고 그를따라가는卒兵들에게선 期待할수업는일이다。

客觀的批評家가 失敗하는 大部分의理由는 그들이 古典的敎養을 가지지안흔데잇다。그것이 업스니 自主的인判斷의標準이서잇지안코 그러니까自然 外部의 權威로부터 威力과規則을 빌려오게된다。그러나 個人의趣味에서出發치안는 文學批評이란 무어런權威잇는것이뇨? 批評은 傳統의秩序에 服從하거나 그를修正하거나 破壞하거나 何如튼 傳統과의 關係에잇서서만 行할수잇다 그리고 이모든것은 傳統의敎養이업시는 不可能한일이다。

科學의法則性

主觀的秩序와客觀的秩序

(一) 徐寅植

獨逸을 本家로한 現代歷史哲學의 動向을보면 그의一般的特徵은 歷史的實在를 歷史로만把握하고 自然으로는把握하지안흐며 特殊로만把握하고 一般으로는把握지안는데잇다。이問題에對하여서는 뒷날다른機會에 말하여보려하거니와 歷史理論에 잇서서의 이러한偏向은 비단哲學界에잇서서뿐아니라 經濟學界에잇서서도 한낫의特徵的潮流를일우고잇다。우리는 그의 典型으로서『아몬』『슈판』『메든리』等에 依하야 代表되는 現代獨逸의 社會學派의 理論經濟學을들수잇다。이들經濟學理論家들의 企圖하는 經濟學體系가 各各 相異한 理論的構造를가젓슴에도 不拘하고 그들間에 共通되는 重要한 方法論的特徵은 經濟學의 對象인 社會의 經濟的構造를 그의基礎(Grund)를 일우는 社會的自然—物質的 技術的 側面과 分離하야 倫理的 目的論的 意味에 잇서서의 單純한 社會的結構로 取扱하려는데잇다。

歷史理論 經濟理論에잇서서의 이러한 時代的偏向을 우리는 現代學者들의 單純한 主觀과 肆意의 偶然한 一致로 解釋하여서는 잘못이다。學問理論이란 늘 그時代의 現實關係를 觀念的으로 表現하여노흔것이다。그러므로 人類史에잇서서 現代가 含蓄하고잇는 轉形期的意義를 十分洞察한다면 우리는 歷史理論 經濟理論에잇서서의 이러한 偏向이 갓고잇는 現代的意義를 容易하게 理解할수 잇슬것이다。

經濟事象은勿論이고 一般的으로 歷史事象이라것은 그의根底를일우는 自然으로부터 切斷될때에는『랄프레힐트』의歷史理論에잇서서와가티 心理的法則에依하야 解釋되지안흐면『리케르트』의歷史哲學에잇서서와 가티 價値原理에依하야 理解되지안흘수업는것이다。다시말하면 自然으로부터 分離할때에는 歷史의 基本法則은 物質的의것에主觀的의것으로代置되거나 그러치안흐면 歷史의基本的性格은 法則性을떠나 單純한個別性에서만 理解되기쉬운것이다。

따라서 歷史의客觀的法則性의 擁護는 時代의動向에關心하는者에게는 時代的課題의 하나이되지안흘수업다。

이러한意味에서 나는 爲先이곳에서 歷史科學의 一部門인經濟學의法則性問題를 말하여보겟다。

十八世紀의重農學派 古典學派의經濟學은 그硏究의目標를 歷史를超越한 經濟의一般法則을解明하는데두어섯다『케네-』『스미스』『리카-도』等은 經濟法則의 槪念미테서 어떤特定國民의 經濟生活만을支配하거나 또는 그國民의特定한歷史的段階만을支配하는 特殊한歷史的法則이아니고 어떤國民生活이나어떤 歷史段階을 勿論하고 一律로規制하는 一般的抽象的法則을 理解하엿섯다。

十八世紀學者들의 經濟思想의 指導理念이며 兼하야硏究對象으로 定立된것은 일은바經濟의『自然的秩序』(Ordre Naturel) 이다『케네-』가말한 著名한 이經濟의『自然的秩序』라는 槪念에는 두가지意味가잇다。그는 첫재人間의意志와 感情에依存하는 主觀的秩序에對立되는 意味에잇서서의客觀的秩序를 意味하는것이며 둘재는 時間과空間에制約되는歷史的秩序에對立되는意味에잇서서의永遠的秩序를意味하는것이다。이리하야『케네-』自身은勿論 그를後繼한古典派學者들은 이 自然的秩序의槪念미테서 그들의 現實的硏究對象인 生産의本質形態를 生産의自然的生理的形態 即生産의自然的必然性에서 出現하야 意志 政治等으로부터 獨立한 客觀的物質的形態로 理解하엿스며 또한 社會發展의一定한歷史階段에서出現한 이客觀的物質的形態를 모든社會形態를一樣으로支配하는 抽象的自然的形態로 看做하엿다。

따라서 이와가티想定된 經濟秩序미테서는 經濟學者가말하는 所謂經濟客體로서의 物財가 自然物로表象될것은勿論 經濟主體로서의人間도 自然人間으로 表象되지안흘수업스며 人間對人間의社會的關係가 物對物의 經濟的自然的關係로 나타나지안흘수업다。

硏究對象으로서의 經濟秩序가 이와가티 一種의自然的秩序로想定되는때에는 우리는無理하게그 硏究方法으로서 數學的自然科學的方法을 經濟學에導入할수잇슬것이다。이리하야 經濟學의建設과發展의 赫赫한功績을 끼친古典派學者들은 自然科學的方法을그들의 硏究에導入함으로써 經濟學의 法則定立은 無難히할수잇섯으나 또한 이方法의一面的普遍化的方法은 忌憚업시 推進시김으써 多樣異質한 經濟發展의 諸歷史的段階를 한갓의灰色으로색칠하여버렷다。다시말하면 저들은 이方法에依하야 資本制生産을 硏究함으로써 그의經濟諸範疇와諸法則을 客觀的法則的으로 再現할수는잇섯으나 또한그것을 歷史的限定을 超越한 一般的抽象的의것으로 再現하엿다 이缺陷은 무릇것보다도 그들의 硏究가『自然的秩序』『經濟人間』『(Homo Economicus)』等形而上學的原理에서出發한데서由來한것이다。

小文庫

讀書의한걱정 誤字의作亂

書籍에는 勿論 著者自身이잘못 알고 잘못 적은것도 잇겟지만은 印刷의 그릇도 업지안 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그릇된印刷는 著者의 本意가 아님에 不拘코 그 글을읽는사람으로 하야금 眩亂케하기는 그 自身의 誤謬나 다를것이 업는 것이다。英國의어떤 有神論者가 어느때 自己의 學說을 發表하는데 맨끄트로 (Now here is God) 이라고 結論을 나리엇더니 印刷工의 작난으로(Now)의(W)字가 (here)의 우로 옴기어 와서(No Where is God)이 되지라 그 有神論者는 고만 黨한 無神論者로 나타난例도 잇섯다。그보담도 더 엽청 난 것은 모세의 十戒中 하나로 奸淫을 하지 말라는 말에서 말라는 意味의 (Not)을 漏落시키어 뒤쪽으로 奸淫을 하라고백인 聖經도 잇섯스니 새럽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聖經을 奸淫聖經이라고 불러온다。

그러나 틀리더라도 그러케 둥도게 틀리는것은 차라리낫다。그럴사도하고 안그럴사도하게 틀리는 그것이 참말 狼狽다。위선 大學의『大學之道。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이란句中 親字를 程朱는 新字의 誤로보고 王陽明은 決코 誤字가 아님을 主張하며 孟子의『必有事焉而勿正。心勿忘。勿助長也』이란 句中正心의 二字를 誤脫 段玉裁는 勿忘勿忘이라고 거듭할 字가 다시 正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보고 朱子는 그대로 解釋하엿다。그 어느편이 올흔지 이러것은 千古의 訟案이다。國語中 祭公謀父가穆王을 諫하는 말로『昔我先王。世后稷。以服事虞夏』란 句가 잇는데 王字가 脫落되매 先王이 代代로 后稷의 벼슬을 가저 虞夏에服事하얏다는 말이 先世의后稷이 虞夏를 服事하얏다는 말로 變하야 버리엇다。多幸히 宋本에나 史記中 同一한 記錄에는 王字가 그대로 잇섯스니까 俗本의誤漏를 쉽게發見하얏지만 그러치 안 햇든들 代代로말이 빠저서 周의 世代를따지는데 커다란 錯誤가 일어낫슬 한것이다。古書라고 밧드시 미드랴 한번다시 그 古書를 細密히 硏究치 안코는 그역시 無謀한 大膽이다。

律管의解說 (二)

李王職雅樂師長 咸和鎭

音樂에는 樂器가第一必要하므로 其樂器의創作된狀態를探究하면 即十二律管이라하는것이다。이律管에對한理論이許多하나 一二의例를들어보면 下와如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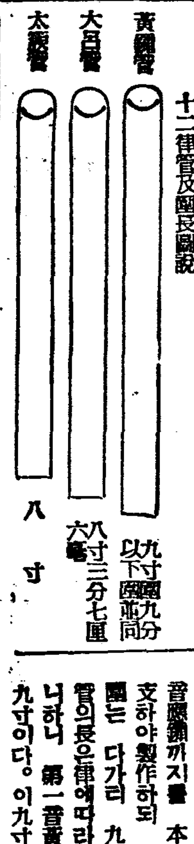
太古支那黃帝軒轅氏는 當時樂師伶倫을시키어 大夏崑崙陰地의대를베여 대의구녁이 고루게된것으로 두마듸사이를잘너서 이것을불어基本音을삼엇스니그것을黃鐘이라하고其律名을黃鐘이라하엿다。

이黃鐘律管을標準으로 다시十二律管을맨드럿스니 이것이即十二律管이다。

이것으로 鳳凰의 울음을形像하엿스니 雄鳴이 六이요 雌鳴이 六이라 이것을陰陽으로갈너서 雄聲을 陽律이라하고 雌聲을 陰呂라하야 六律六呂를 總謂之十二律이라한다。

十二律名에 黃鐘 太簇 姑洗 蕤賓 夷則 無射는 六律即陽聲이요 大呂 夾鐘 仲呂 林鐘 南呂 應鐘은六呂即陰聲이다。

十二律管及圖長圖說



黃鐘管	九寸(圍九分)以下同
大呂管	八寸三分七厘六毫
太簇管	八寸
夾鐘管	七寸四分三厘七毫三絲
姑洗管	七寸一分
仲呂管	六寸五分八厘三毫
蕤賓管	六寸二分八厘
林鐘管	六寸
夷則管	五寸五分五厘一毫
南呂管	五寸三分
無射管	四寸八分八厘四毫八絲
應鐘管	四寸六分六厘

樂學軌範에曰律管의制度는年久한海竹을取하야 대구녁의周圍와直經이 꼭가튼것을골나서 두마듸사이를 잘너서 第一音黃鐘으로부터 第十二音應鐘까지를 本律寸法에依하야製作하되 十二律의空圍는 다가티 九分으로하고 管의長은律에따라서 각각다니하니 第一音黃鐘管의長은 九寸이다。이九寸으로定하는뒤에는 또여러가지理論이잇스나 아직省略하고 元來 대의구녁이 아래는 좁고 위는넓음으로 대속을깍거서 아래와위를 꼭가티한然後에 可히聲音을바르게한다하엿고 又曰黃鐘管의 長이九寸이요 空圍는九分이요 積은八百一十分이요 容黍가一千二百粒으로써 黃鐘律에맛는다하엿스니 이容黍라하는것은 即黍에기장을말한것인데 기장中에비치검스고 둥근것을取한것은 다른穀物보다 몸이고르다하야 이것을取한것가트나 어재서何必이기장으로 容積을取하엿느냐하면 想像컨대太古黃帝軒轅氏時代에 天然物中에기장이 가장重要하엿든가십고 後世에서도 이것을模倣하야 기장으로標準한것이라고 生覺하는바이다。

李朝世宗七年에 關係朴堧氏上疏文의 要志만을 말슴하면 聲樂이和하기는 自古로至極히어려운일이다。古人이 聲音을議論한則 반다시聲으로써主張하고 律管을議論한則 반다시累黍로써 根本을삼은지라 至今하날에서 秬黍를내리고 땅에서磬石이나왓스니 今日맛당이모저 較正할것은律管이라 古書를相考하건대 周나라에서는 有部땅에 秬黍를求하야 音樂이和하엿고 漢나라에서는 任城땅에 秬黍를求하야 近似하엿고 隋나라에서는 羊頭山秬黍를求하야不和하엿고 宋나라에서는 京城秬黍를求하야 또한不和하엿스니 이걸로보면累黍之法이 비록方法은 잇스나 眞正한 기장을엇기가 가장 困難하엿든것이다。이것이다갓호不穀이나지고 京畿所產은 潤澤하며살이고 東北地方에는 더욱이 말는고가늘어서 기장의大小長短이 다갓지아니하니 이럼으로歷代로 律管이 기장으로因하야다갓지안코聲音의高下가代代로달은것은 遺憾이다 至今南方所產의 기장을모와 三等으로나누고 律管을制定하고 다시損益法에依하야 正律을較正할것이다 萬一至今律管을較正하지아니하면 五音淆亂이 失眞을免치못하리라하엿다。

新刊紹介

◀映畵時代 續刊第一輯 發行所 京城府勸農町一七三 映畵時代社 定價十錢 送料一錢

◀時兆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淸凉里町 時兆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新學世界 第二十二卷第六號 發行所 京城府冷泉町三一 新學世界社編輯部 振替京城四六四番 定價二十五錢

◀靑年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 振替京城一〇三八番 定價十錢

◀農民生活 一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三九 崇實學校內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朝鮮敎育時報 第二十號 發行所 京城府瑞麟町一八七 朝鮮敎育時報社 定價一部十錢

◀新人間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慶雲町八八 新人間社 振替京城一〇一一八番 定價十錢

新春一等當選小說

남생이 (三)

玄德 作 洪祐伯 畫

자기가 먼저발을드려 귀숭숭한방안으로 옹숭히 드려서 방문을 닷는다。그러나 조금후 노마를 불러드린다。아버지는 잔말이 만타。

『영이 할머니 집이 엇디』

『응』

『엿서』

『뭐해』

『노란』

『그녀 노란지』

『……』

『바아지 목소리 숭내 내는놈 누구난』

『수도집 곰보란니깐』

『그놈 어디사는 놈인데』

『수도집 사리』

『수도집은 어디지』

『……』

어제도 그제도 물은소리를 또 뭇는다。

바아지는 성이 박가래서 부르는 별명만이 아니다。죽어텁인데 밥들이 지고 코끼지 납짝하고 삐삐한 상이 바아지 갓다。그는 호래비다。노마집에서 조금잇는 노피로 올라앉은 움집 쪽문엔 언제나 장금쇠가 채여잇다 그는 두루마기 속에 이발기게를 감추어 차고 선창으로 나갓다。커다란 구두를 신고 그것이 무거워 그러는듯이 빽정다리로 질질 끈다。그러나 선창에 나가 그만흔 사람가운대서머리깍을 자를 골라내는 수는 용하다。그럴한 사람이면 꼭 찍어 창고뒤,잔교밋,으슥한 곳으로 꿀고가 채를 버린다。그는 막까는머리 이상의 기술은 업다。그러나 오전 십전 주는대로 밧는 이것으로 객을 껀다。그는 남에게 바알이상의 대우를 밧지못하는 대신 저도 남에게 허우이상의 말을 쓰지안는다。

팔장을 찌르고 머리를 딱끼고 안즌 검정조끼 입은자는 기게를 놀리는 바아지에게 말을 건다。노마어머니 얘기다。

『헐보는 뭐여 그게 먼저방인가』

『먼저방이 뭐유 생때가튼 서방은 눈을 뜨고 안젓는데 뭐 하나뿐인줄 아슈 선창바닥의잡놈이란 잡놈은 모르지』

『자벤 그 여자하구 장가든다』

『호호호』 면서 정탐여」

그러나 바아지와 노마어머니는사이가 옹주다。

배바짱 박게 남자고무신에하얀 여자고무신만이 노여잇슬바엔 못지안하도 알일이로되 바아지는 체면을보은다。하놀도단문울 구두발로 찬다。

『어불러 김서방 예잇수』

저도 사나이에게 틀림이 잇다는것이지만 머리깍을 사람을 인도해 가는곳이 가마니간 구석 떠지뒤 으지깐가는 노마어머니가 자리를 잡엇슬뜬한 장소를 끌리다니며 해살을 노는데는 좀 심하다。또 지꾸진자는 입부러 바아지를 그런곳으로 드러보내기도한다。

『저리 약강집뒤로 도라가보슈 누가 머리깍그러 오랍디다』

남들이 킥킥킥 웃음을 죽이는 장면에 바아지는 칠흑한얼굴을하고 도라서 나온다。그러나 어색한것은 사나이다。

『업네 업서 뉘가 조아서 먹은 술이가 뵈 엇지루 떠너서 먹은 술값 거 너무조르는데』

여자를 으슥한 곳으로 이끌든 갓은 방법으로 사나이는조기수머니를 움켜쥐고 경겨경겨 놈이듯 떠러서간다。

『날좀 보슈 날좀 보슈』

노마어머니는 후장거름으로따라가다는 남자가 마당 군중가운대 석기자 멈춘다。벼선을 진사 떡목판을 버리고 스자지게를 버서노코 걸터안즌자 노마어머니를 둘데로 적은 범위의 사람이 음하게 옹울따튼그리 대수롭지 안하

현장에서 좀 떠러서 노마어머니는 바아지의 안가슴을 움켜잡고 는다

『넌 나허구 무슨 대천지 원수루 남의 뒤만 졸졸 따러단이면서 장사하는데 헤살이냐요 바쳐신아』

『헤살은 누가 헤살여 임자가 헤살이지 임자만 장사구 난 장사 아닌줄 아러』

옴키니 그른거니 옥신각신하다가 좋합은

『난 허가 업시 머리를 깍거주구 임자는 허가업시 술을 팔구 험할이 잇거던 저리가 험시다 저리가 해』

固形タンゴドーラン (당고도-랑)

從來의粉白粉의缺點을업새고近代科學의精粹를다한것이固形당고도-랑입니다 飛散치안코잘퍼저서데리케-트하고優美한色調는共히新時代의感覺입니다 固形인故로量은從來品의半分이면充分합니다

35전 60전

風鳥チーゼル (풍조 치-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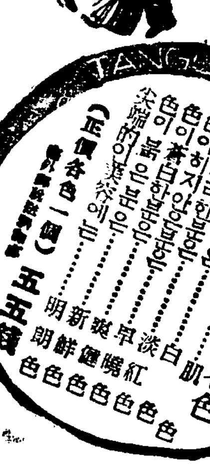
엉겅퀴는살결을保護하는것으로有名한것은잘아실줄생각합니다 風鳥치-제루는엉겅퀴의新精分을精選하고他의高貴한化粧料를配合해서만든藥用化粧水로서 부틈、여드름에는絕對의効力이잇습니다

30전 50전

風鳥口紅、ホ紅 (입술연지 뺨연지)

입술연지뺨연지는化粧의決定版이라고도할만합니다 그러한만치良質의잘붓고떠지는것을選擇해주십시요 정말잘버서지고치덕거리는것은좋하지안이집니다

30전 22전 30전



TANGODORAN

(定價各色一圓) 五五錢

瞬間の化粧栄えは 何人と云っても 近代淑女婦人の タンゴドーラン

(순간의 화장미는 무어라해도 근대숙녀부인의 탕고도-랑)

タンゴドーラン (당고도-랑)

손쉬운化粧은近代女性의嗜好 タンゴドーラン은三美兼作用의化粧水、크림白粉의綜合化粧料로서 땀흘리는여름에는업서서는안될唯一한表情化粧料입니다 얼굴부터의몸치장外出에는꼭必需합니다

55전

ブルース (부루-스)

여름!魅力의꼬희인얼굴을 눈부시게미의시원지태을 파이어뿜입니다。 ブルース는白粉下가不要함。絕對로白粉毒이 업는最高級의粉白粉으로 모든含有의粉白粉입니다 他의固練白粉과달라、化粧水에타면水白粉이 됩니다

60전 1원

風鳥メール (풍조 메-루)

크림은良質인것을選擇해서쓰는것이좋습니다 여름은特히 살결을害치는때인故로美肌保護에 十分한風鳥메-루를잊지마시고 新時代의美容訊選히하야 妙齡의處女答을자랑해주시지요

東京・大阪 株式會社 平尾贊平商店 · 化粧品店에잇습니다 · 全國百貨店 · 藥局

新春懸賞入選童話

호랑이 써-커스

林正華 作
江湖 畵

영이는 한고향일뿐더러 나와 상대되는 여배우다。공중그네도 가리 손을 잡게되고 내가부리는 호랑이등에 올라서 춤도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것이다 그러케 관중의 박수를 사게되는것은 매양 나와 영이의 콤비뿐이다。

도하나인 곡예사로는 우리부리하게생긴 비대한인데다 사다리우에서 『재간을넘는 단장마누라의 상대역이나 할으로 관중에게 그다지조흔인상을 주지못하다 게집이재주를 넘고잇는 노픈사다리를한손으로 바처들기도하고 억개에 얼기도하는등 재만은한 찰신이나서 잇는힘을 다하지만 『돼지처럼 힘두세군』하고 관중은웃어댈뿐이다。하기는 호랑이부리는것만은 따로의 자랑일것이다。우리들은그를호랑이라고 불으거니와 우둔하게 미욱스리만생긴 그는 호랑이부리는것만은 맛치인 곡예이다。

나와그는 두마리인 호랑이를한마리시식 나눠서 부리는것인데 그는 내가못하는 재조를 넘즈시 호랑이에게식이는것이다。

그러면서도 호랑이곡예마저내、편이 인기일런지도 몰은다 호랑이처럼생긴 다로가 호랑이에게 곡예를시키면 그저신기로워할뿐이나 나는다른의미로 관중의 흥미를끌고잇다。약골인미소년이 영맹한호랑이를 상대로 무대에 올으면 관중은 소년의불안과호랑이의 위협을느끼지 안흘수업다。그실나와 호랑이의 대조는 너무도 엄청나다。그러면서 도호랑이에게 가진재조를 다식여야하고 더구나 호랑이를 솟어안고 키쓰를하는장면은 관중이 손에땀을 쥐지안흘수 업을것이다。

그리고 영이의 가열된 줄외로-즈와 애여한노래가 뭐노는호랑이 등에서 금시에숨이 끈일듯시 무른녹아를 무렵이면 주렴의 거문그림자가 어린관중의박수는 무대를 뒤집어어풀것갓다。

판중은 언제나 이십전삼십전 내던진 돈갑을하는 박수와함께 재각기의 슬거움에 저 도라가는것이다。막이내리켜컴한 무대에는 보하지안는 눈물로 영이와 내가붉란파 피곤에서 그대로 쓸어저 잇슬때가만타。

×

우리단원들은 한집안처럼친하다。그럼밧게 업는것이 모두 고향을 멀리한 외로운 사람들 뿐임으로ー。더구나 수입이만흔때는 배당이후해서 돈으로나 위안을어들수가 잇지만 장마철이라든 겨울이라든 하는때는개지에서돈조차떠러지고하면정녕속을지경이다 모두다 가튼운명에서 써-커스의 눈물겨운 재주넘기를 언제나 언제나 되푸리하는신세가 되엿지만 평안북도 묘향산이고향인 영이는 어려서 부모를일코 친척의손에서 오십원이란돈에 팔리여온 몸이다。나역시、영이와가튼 운명에서임은 말할할것도업다。

영이는 나와단둘인때에는 나를 옵바라고 불럿고 나도『えいちゃん』을 고향의 사투리대로 영이라고 불럿다。우리들의사히는 그만큼친하엿고 두리만인때에는 오래이젓든 고향의사투리로 속삭이기를 즐기엿다。따라 고향사투리가 날려다주는 안옥한 묘향산옛집의 어린꿈을 생각하고는 울때도 만헛다。

『우리는 언제나고향에가서 살아볼지몰라。묘향산의 고사리두 두재이 우렁스러 도장을 계안』하고 영이는 용기를 잘한다。

『대성산의 고사리야 아주유명하지 영이두고사리를 꺽거보앗나。』

『그러엄 어려서는 동리애들하구 靑星高峰이루 고사리꺽그러다녓다우。』

『영이에겐두 묘향산의 고사리러전을 다시찻는날이 오겟지 설마 써-커스의귀신이야 될리구。』

이래서 영이를 위로하는 나도어느새 울게되는것이다。

十一日(火曜)

◇午後六時 獨唱 一、겨울밤의합唱 英國民謠 二、어린이꿈나라 버ー드曲 三、눈오시는아츰 尹克榮曲 四、우는새 하이드曲 五、그리운故鄕 듸롤스民謠 六、달마 포ー레스트曲 七、새벽 朴泰俊曲 八、고드름 윌슨曲 九、고향생각 도ー나曲 鄭致燒 伴奏 崔準鎭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梅花의傳說과詩歌』 徽高 李秉岐
◇同七時四〇分 講演『支那海關이야기』 徐椿
◇同八時〇五分 舞臺劇ー東洋劇場으로부터中繼ー『杏花村』ー林仙圭作 配役 黃澈 金用甫 粉玉(그妻)池京順 賣令(그딸) 趙美鈴 張元淳 金東玉 老人 卞基鍾 엿장사 卜元圭 洞里兒孩(一)崔敬愛 同(二)崔善喜 外여러사람 靑春座
◇同八時五〇分 音律 靈山會相 中 진靈山 가락도도리 三絃 下絃 念佛 玄琴 李彦植 洋琴 李承煥 奚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趙嚴福 杖鼓 池龍九
◇同九時一〇分 새打鈴 一、六字바이 二、興打鈴 趙蘭玉 趙錦玉

第一放送
◇午後六時(城)童曲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講演(自天津)
◇同八時 (札)俚謠
◇同八時二〇分(東)琵曲

十二日(水曜)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山念佛 二、긴아리랑 三、靑春歌 四、노들江邊 五、오돌山 六、사발歌 短簫 崔壽成 細笛 李炳祐 奚琴 池龍九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上級學校入學準備에對하야』 第二高普 鄭[illegible]
◇同六時 童話『왕비된영애』 李順伊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古代朝鮮의家族制度』 中樞 金斗憲
◇同七時四〇分 講演『支那의排日敎育에對하야』 每申 柳光烈
◇同八時一〇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三、지름 高永泰 大笒 朴鍾基
◇同八時二五分(東)室內樂(定期演奏第一回) 木管七重奏 플루ー트 宮田淸藏 오ー보에 岡田末吉 크라리넷트 辻井富造 〃 山村哲夫 호른 谷中純策 파고트 山田仁 〃 藤澤正市
一、歌謠와舞踊 당되作曲、 플루ー트 宮田淸藏 오ー보에 岡田末吉 크라리넷트 辻井富造 트럼펫트 中村鐵次郞 호른 谷中純策 파고트 上田仁 〃 藤澤正市
◇同八時五五分 라듸오드라마『海棠花질때』李尙洙作 配役 바보그父親…柳玄 서울大學生…張陣 淑英…高龍女 龍吉…金元浩 容粉…車紅女 龍吉의兄…孫洸星 演出 東劇協會 效果 南宮出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大)琵琶
◇同六時(名)兒童劇
◇同六時二五(東)支那語
◇同七時三〇分(東)
◇同七時四〇分(京)講演
◇同八時(釜)長唄
◇同八時二五分(東)室內樂
◇同八時五五分(東)小說

十三日(木曜)

◇午後零時五分 映畫이야기『沈淸』 金素英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神經質어린이에對하야』 趙漢英
◇同六時 童話劇『鐘소리』三景 童心會 作과指導 朴興珉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直指人心見性成佛』 金泰洽
◇同七時四〇分 講演『列强과國際情勢』 東亞日報 高永煥
◇同八時一〇分 一、小春香歌 二、執杖歌 三、平壤歌 尹一枝蓮 朴玉姬
◇同八時四〇分(東)管絃樂(現代日本音樂第一回) 파로듸的인四樂章 深井史郞作曲 一、파리아 二、스크라빈스키 三、라벨 四、부칠 피아노獨奏 井口基成 管絃樂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深井史郞
◇同九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악 二、倂唱 가、丈夫歌 나、瀟湘八景 沈相健 杖鼓 韓成俊

舊樂界의彗星

新進名唱 **金錫九獨唱會**

贊助出演
宋萬甲・李東白・丁貞烈
金昌龍・吳太石・丁南希
韓成俊・朴綠珠・金錸守

時日 一月十一日、十二日午後六時半
場所 府民館大講堂
入場料 五十錢均一(本報讀者三十錢)
主催 朝鮮音樂舞踊同好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金錫九獨唱會
入場料 五十錢을 三十錢으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場所 府民館大講堂
時日 一月十一日・十二日午後七時
一人一枚限

品質本位

花王石鹸

화왕비누

謹で永年の御愛顧を感謝し奉る

內務省殿
陸軍省殿
海軍省殿
文部省殿
商工省殿
遞信省殿
鐵道省殿
農林省殿
拓務省殿
東京帝國大學醫學部殿
京都帝國大學醫學部殿
東北帝國大學醫學部殿
九州帝國大學醫學部殿
北海道帝國大學醫學部殿
大阪帝國大學醫學部殿
京城帝國大學醫學部殿
新潟醫科大學殿
岡山醫科大學殿
千葉醫科大學殿
金澤醫科大學殿
長崎醫科大學殿
熊本醫科大學殿
名古屋醫科大學殿
滿洲醫科大學殿
慶應義塾大學醫學部殿
東京慈惠會醫科大學殿
日本醫科大學殿
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殿
近衛師團管下各聯隊殿
第一師團管下各聯隊殿
第二師團管下各聯隊殿
第三師團管下各聯隊殿
第四師團管下各聯隊殿
第五師團管下各聯隊殿
第六師團管下各聯隊殿
第七師團管下各聯隊殿
第八師團管下各聯隊殿
第九師團管下各聯隊殿
第十師團管下各聯隊殿
第十一師團管下各聯隊殿
第十二師團管下各聯隊殿
第十四師團管下各聯隊殿
第十六師團管下各聯隊殿
第十九師團管下各聯隊殿
第二十師團管下各聯隊殿
關東軍各隊殿
臺灣軍各聯隊殿
支那駐屯軍各隊殿
各陸軍病院殿

陸軍各飛行隊殿
陸軍東京經理部殿
陸軍各學校殿
陸軍造兵廠各工廠殿
陸軍航空各支廠殿
陸軍兵器本支廠殿
陸軍技術本部殿
陸軍科學研究所殿
陸軍軍馬補充部各支部殿
千住製絨所殿
陸軍糧秣本支廠殿
陸軍被服本支廠殿
陸軍衛生材料廠殿
陸軍各偕行社殿
各鎭守府殿
舞鶴要港部殿
大湊要港部殿
馬公要港部殿
鎭海要港部殿
旅順要港部殿
第一艦隊殿
第二艦隊殿
第三艦隊殿
練習艦隊殿
各警備艦隊殿
橫須賀海兵團殿
吳海兵團殿
佐世保海兵團殿
上海海軍特別陸戰隊殿
各海軍病院殿
各要港部病院殿
海軍各學校殿
海軍各航空隊殿
海軍各工廠殿
海軍技術研究所殿
海軍燃料廠各部購買殿
海軍各水交社殿
海軍各下士官兵集會所殿
海軍各共濟組合殿
帝國在鄕軍人會本部殿
東京鐵道局殿
名古屋鐵道局殿
大阪鐵道局殿
門司鐵道局殿
仙臺鐵道局殿
札幌鐵道局殿
廣島鐵道局殿
新潟鐵道局殿
朝鮮總督府鐵道局殿

南滿洲鐵道株式會社殿
滿洲國有鐵路總局共濟組合各購買支部殿
朝鮮總督府鐵道局消費部殿
臺灣總督府鐵道購買部殿
關東廳職員各購買部殿
滿鐵社員消費組合殿
傳染病研究所殿
東京工業試驗所殿
東京市衛生試驗所殿
理化學研究所殿
朝鮮總督府各道立醫院殿
臺灣總督府各醫院殿
關東廳各醫院殿
樺太廳各醫院殿
北海道廳各醫院殿
各鐵道病院殿
各府縣立病院殿
全國各地公市立病院殿
日本赤十字社各病院殿
財團法人濟生會各病院殿
支那各地同仁會各醫院殿
東京橫濱同愛記念病院殿
財團法人和泉橋病院殿
聖路加國際病院殿
全國各産院乳兒院殿
各地方專賣局殿
日本製鐵株式會社各購買殿
日本製鋼所殿
三井鑛山株式會社各購買殿
三菱鑛業株式會社各購買殿
住友連系會社各工場購買殿
日本鑛業株式會社各購買殿
古河鑛業株式會社各購買殿
王子製紙株式會社各購買殿
北海道炭礦汽船株式會社各購買殿
東洋紡績株式會社各購買殿
大日本紡績株式會社各購買殿
日清紡績株式會社各購買殿
富士瓦斯紡績株式會社各購買殿
全國各紡績工場殿
淺野セメント株式會社各購買殿
日本石油株式會社各購買殿
日本海員掖濟會殿
全國各造船所殿
全國各消費組合殿
全國各學校購買部殿
滿鐵總局福祉生計所殿
滿洲國官吏消費組合殿
(御芳名次第不同)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中部版

一山鄕柶大會盛況

【一山】지난八日부터 십일일까지 나흘동안 일산 음식점조합(飮食店組合)의 주최로 신년축하 척사대회를 개최하엿는데 그 상품은 다음과갓다

一等 白米四叺 二等 二叺 三等 木綿一疋 四等 [illegible] 五等 洋傘一個

公私立學校職員의 身體檢査도斷行
每年四月又는五月에實施키로 京畿道서規定을草案
學童保健은 職員으로부터

일본내지에서는 날로저하하야 가는 국민의체위향상(體位向上)을 주요한목적으로 이미 후생성(厚生省)의 신설을 보앗거니와 경기도에서는 제이『제네레-슌』인 초、중등학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잇는 도내삼천이백여명의 초중등교원들의 신체검사를 매년사월에 실시하기로결정하고 십일일 다음파가튼『학교직원신체검사규정』초안을 작성발표한바 잇섯는데 이것이 실시되면 교원들의 체위향상은물론 생도들의 보건상에도 만흔효과를 어들것으로지금부터 만흔기대를갓게한다

學校職員身體檢査規定草案

第一條 公私立學校에서는 每年四月職員의身體檢査를 施行할일 但特別한事情이잇는때에는 五月에이를施行함을得함

第二條 身體檢査는 學校身體檢査規定第二條 第四條及第五條에 準據하야 施行할일

第三條 檢査醫는 前條의檢査를 終了할때에는 全身의狀態를綜合考察하야 保健衛生上 注意할事項을 本人에게 與할일

檢査醫는 學校衛生上 特히 考慮를要하는者를 發見하는때에는 其病名、治療의要不用、傳染性의有無、其他必要한事項을 學校長에게申告할일 但特別한事情이잇다고 認하는境遇에잇서서는 直接知事에게 報告함을得함

前項 學校衛生上 特히 考慮를 要할者라는것은 肺結核、肺尖加答兒 肺浸潤 肺門部淋巴腺炎 腸結核 頸腺結核 其他의 結核性疾患及 癩 其他 傳染性疾患을가진者를 稱함

第四條 學校長은 前條第二項의 申告를 受하야 傳染의 念慮가잇는 疾患이잇는때에는 이에 關하야 適切한 處置를 講하는 同時에 檢査醫의 意見을 具하야 遲滯업시 知事에 報告할일

第五條 身體檢査를 終了한때에는 其結果를 別記樣式의 職員身體檢査票에 記入하고 其副本을 그年月日까지 知事에게 報告할일

前項 職員身體檢査票는 學校長이 이를 保存할일

職員으로서 他學校에 轉任하는때에는 前學校의 學校長은 그學校의學校長에게 其身體檢査票를送附할일

第六條 知事又는學校長이 必要로認하는때에는 適當한項目에 就하야 臨時身體檢査를施行함을得함

前項身體檢査를 施行하는때에는 學校長은 其結果를 곳知事에게報告할일

第七條 病氣其他事情에 依하야 第一條의規定에依하야 身體檢査를施行하기 不能한者에게 對하야는 其事情이업서진後 곳이를施行할일

第八條 前各條의規程은 幼稚園職員及學校及 幼稚園의 傭人身體檢査도 이를準用함

交通事故件數增加 人命犧牲은減少
昨年末까지本町署管內集計

본정서관내에서 작년칠월부터 십이월까지 사이에발생한 교통사고를보면 전차에관한것 이십오건 자동차에관한건 일백륙십오건 자전거에관한건 팔건으로 합계 일백구십팔건인데 재작년동기칠십이건에 비하면 배가될 신범는다고하며 생명을일흔 사람은 전차에한명 자동차에한명 도합두명밧게 안된다고한다

江華木曜會新年會

【江華】강화에잇는 십분인 단체목요회(木曜會)에서는 지난륙일오후 륙시부터 부내 영춘관에 유지 이십여인을초청코 화기애애한 가운데신년연회를 개최하고 대성황을일우엇고 주최자목요회주석 금철(琴澈) 씨의 의미미심장한 인사와 강화군수 박제승(朴齊昇)씨의감상담이 잇슨후 동시반에폐회하얏다

地方人事

▲伊東正三氏(楊州郡守)京畿道廳에榮轉人事次本社楊州支局來訪

"農振"運動刷新코자 三大項目을協議
十一日、京畿道廳會議室에서 오래간만에委員會열고

경기도에서는 도내농촌진흥운동의 대쇄신(刷新)을 도모하기 위하야 십일일 오후한시부터도청구회의실에서 오래간만에 농촌진흥위원회를열고 위원장 감자(甘蔗)지사를 비롯하야 위원 사십명이 출석하야 좌기각항을 협의한바잇섯다

一、更生計畫完了部落의 指導에 關한件

소화팔년도에 설정한 갱생부락이백팔십부락은 오는삼월에 갱생계획 지도기한이 끗치남으로 그성적을조사하야 특히 나흔것을세하고는 모두 부락강령(部落綱領)을제정케하야자력갱생(自勵更生)의길을취하게할일

二、殖產契의 指導及監督에關한件

총독부의 방침에따라 종래도리재과(道理財課)내지 금융조합에서 지도하야오든것을 지방과(地方課)에 이관(移管)하야 식산계를 농촌진흥회에합류(合流)시켜 지도의 일원화(一元化)를 할일

三、指導班組織指導의件

일월하순부터 이월하순까지에도간부로 지도반(指導班)십반을 조직하야 각갱생부락에출장순시케할일

年賀郵便七割減
年末年始의小包其他도減少 春川郵便局의集計

【春川】춘천우편국(郵便局)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사변이래 비상시국(非常時局)에처하야 무단한경비를 절약하라는 방침에호응하야 년하장(年賀狀)을폐하도록 하라는지시에의하야 춘천우편국(春川郵便局)에나타난통계를조사한바에의하면 인수(引受)가 사만칠백삼십이로작년에비하면 륙할칠부이리가감소되고도착(到着)이 삼만칠천일백십오로륙할구부가 감소되엿스며 기타우편이 전부사할내지 륙할의감소를 보게되엿는데 년하장(年賀狀)의인수도착과 그의수자를적으면 다음파갓다

	本期	前期	
引受	四〇、七三二	一二四、三九四	六割七分二厘減
到着	三七、一一五	一二二、二二一	六割九分減

仁川에도暴風

【仁川】지난칠일아츰부터 부는 강풍은 오후가되여도 끗칠줄을 모르고 주위는 한층더우세를보이더니 금조에 이르러서는 좀누구러진듯하나 잘잘하기는말할수도업다 어제바람으로 말미암아 인천부두(北部)일대에는 풍진이 날리로 통행인들은 눈을못뜨며서 좌왕우왕 서로마조부딋치는등 일대 히비극을 연출하얏다하며 더구나 송현(松峴)송림(松林)금곡정(金谷町)은 빈민들이 참집한곳으로 그-동거를 때인재로 말미암아 북부(北部)일대는 재와몬지의 난비로 가정마다괴로움은 말할것도업거니와 일반은 부당국의태만에비난이놉다고한다

平康郡民熱誠 八千餘圓獻金

【平康】현하비상시국에 처하야 국재정세는 날로험악한 이때를 당하야 국민의 애국열은 나날이고조(高調)되여가는 상태인데 평강유지와 각단체로부터 연일 답지하는 현금은군과경찰서와면당국에 기탁되엿다는데 현금액은 실로 적지안하야십이년까지기탁된것이 약팔천여원이나된다한다

强盜逮捕者를 仁川署長이表彰

【蘇萊】부천군소래면도창리(富川郡蘇萊面道昌里)출생으로 현재시흥군군자면거모리(始興郡君子面去毛里)에 거주하는 무직강재돌(姜在乭)(二?)은 지난구일오후여섯시반경 시흥군서면노온사리(始興郡西面老溫寺里)우시장 중개인김명오(金明吾)(三?)가 장꾼두사람과가티 뱀내장에서 자기집으로 도라가든도중 양지산고개에이를때 별안간 적기범인 나타나 김명오를 위협하고 현금삼십전을 강탈도주하는것을 김명오가 도적이야 소리를 처서 동면안현리구장이 동리청년들을총출동시켜 범인을추격하야 격투한후 체포하야 소래경찰관주재소 중야(中野) 부장에게 인도한사건이잇서 인천이뢰서장(二瀨署長)은 동구장 변우섭(邊宇燮)씨를 표창하야 금일봉을 주엇다하며 그범인은 방금본서에서엄중취조중이라는데 범인의 소지품은 마치(金鎚)일개와 신도한자루 고무맹양복일습을 가젓다는데 여죄가 상당한모양이라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25】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송악산(二十五)

배돌석이와 황천왕동이 두사람에게 참혹하게 몽패한 왈자패는 판덕정(判德亭)한량들인데 모도 열두사람중에서 칼에죽은사람이 하나요 칼에중상을바든사람이 셋이요 돌롱매에 면상만 상한사람이 여섯이요 칼도안맛고 돌롱매도 안마즌사람은 둘이나 하나는 아랫배를 발길에 거더차여서 거의다죽게되엇고 오직하나만 별로 상한데 업시 성하얏섯다 죽은사람은 도사의아들이요 성한사람은 도사의문객이요 그남아지 한량들은 도사에게 활을배운 사람이니말하자면 도사의제자들이엇다

림꺽정이가 청석골을 웅거하고 잇는까닭에 지난해 삼월에 나라에서 송도도사를 특별히호반으로 보내게 되엇섯는데 호반도사가 송도에 나려온뒤 사정(射亭)에 드는부비를 자기녹미(祿米)로 쓰고 활쏘는것을 몰으는사람을 자기손으로 갈르처서 판덕정 한량들을 길러노핫섯다 이날 도사의아들이 자기집문객 한사람과 동무한량중의 나이절믄 작난군 몃사람을 다리고 굿구경을 나와섯는데 굿구경보다 기집구경에 반하야 입분기집만 듯보고다니다가 큰 벌집을 몰으고 건드려서 아까운 목숨을 맹낭하게 버리게된것이다

상한데업는 둘과 상처중하지안흔 한량들이 대취각리(大聚閣里)이아(貳衙)에 뛰어와서 도사를 보고 참혹한변이 생긴것을 고하는데 변이 생기게된 시초만은 젊은기집하나를 두패가 서로 빼스라고 하얏다고모호하게 말한뒤에 변을 당한것은 대강다 사실대로 말하고끄틀로 그때가 흉기(凶器)를흘에지니고 다니는것이 밋지럽당이라고 부치어 말하얏다 도사가 눈물도 안내고 말도 안하고 넉일흔사람가티 안젓더니 별안간에

『원수를 갑허줘야지』

듯는사람이 섬뜩할만큼 소리를 크게 질르고 벌떡 일어낫다 도사가 통인하나만 다리고 걸어서 류수아문으로 갈뒤 얼마만에 원문(轅門)안에서 불시에 지대답 청령소리가 야단스럽게나며 곳 군뢰청(軍官廳)의 군속(軍屬)들이 군두박질 뛰어들어가고 서리청(書吏廳)의 리속(吏屬)들이 썰썰 기어들어갓다 한동안지난뒤에 금도군관(禁盜軍官) 서넛이 십여명 군졸(軍卒)을 거느리고 송악산으로 살인범인(犯人)을 잡으러나오는데 그뒤에는 판덕정한량과 이아사령(貳衙使令)이 십여명 딸하나왓고 다시 한동안 지난뒤에 류수가 도사와 비장파 형리 사령 기타 검시장(檢屍場)에 청령할 만족파 도사의문객 부상(負傷)한한량 기타 검시장에등대할 사람들을 거느리고 부산동으로 친히 검시(檢屍)하러나왓다

부산동에 살인이 난것을 부중안에서는 빨리 안사람이 금도군관의 일행이 나올때 알엇고 대개는 류수상도의 행차가 나올때 비로소 알엇지만 산우의 구경군들 사이에는 류수행차는 고사하고 군관일행도 나오기 훨씬전에 소문이 먼저 퍼저섯다 이것은 구경군중에 부산동살인이 난곳을 가보고온사람이 더러잇섯는까닭이다

『부산동서 살인이 낫다네』

『기집구경 차지러갓든사람이 삼끄테 살이햇다네』

『백주에 남의기집을 훔처가는 놈들 죽어두 싸지』

『그 아주먼네 자네 똑똑이 봣나』

『나 누구든지 훔칠생각 나겟데』

『악가 업구오든사람이 그여편네의 사낼테지 그사람은 선비갓데 그사람이 사람을 죽엿슬까』

『뒤에 따러오든 우악스럽게 생긴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지』

『옳지 그사람이 손에 환두를 들구오든구먼 환두를 들구오는걸 보구 나는 벌서 일난줄 알엇네』

『그게 사람을 공기가리놀리든 장사야』

『살이할번한 사람이 그예 살인을햇네그려』

『생김생김이 사람죽이게 생겻서』

『그사람일행이 지금 저 매로바위미테 안젓데 도망을하든지 자수를하든지 양단간에 하지 안쿠 태평 안젓스니 무슨 밋는구석이 잇는모양이야』

『무엇 미더 힘이나 미들까』

『잡히러오기를기다리구잇는게지』

산우의 구경군들은 대개다 길막봉이를 살인원범(元犯)으로알어서 이사람 저사람의 입에서 이와가튼 말들이 나왓다

時日 一月十五日(正午)十六日(午後一時)兩日間
場所 清涼里町綜合滑氷場

第六回 全朝鮮中等對抗氷上大會
第三回 全朝鮮都市對抗氷上大會

申請 十二日午後五時까지 京城府鍾路一丁目四六 朝鮮體育會로
主催 白狗滑氷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

歡喜의再來
紅燈閨帳深夜中에 長嘆息하든無力이
대번에뜻대로되는
性慾減退 性器障害 速强藥
異性의愛를獨占하려는男子이면 必히此秘房藥을곳服用할지어다
キング・オブ・キングス
002434

男女生活의障碍

우리의人類가 地球上에生存하야 生活해나가는가운데에서 萬一性慾을無視한다면 그것은 人類의發展을 막는것이오 進步를害케하는것이며 또는 男女가어떠한연분으로 因緣을맺는때에는 微妙한愛情으로 無限한幸福感에 陶醉케되는것이 그모다가兩性間의完全한性的結合에서 생기는것이므로 男女間의性生活은 어디로보든지 人生의重大問題이며 決코 소홀히生覺할일이아니니 自己의性에對하야 조금이라도 欠陷을늣기어 性生活上에障害가될때는 하로밧비回復되도록 힘써주시기를비라는바이다

『キング、オブ、キングス』는性慾學의 大家이며 日本、獨逸醫學博士인 羽太銳治先生이 多年間苦心硏究한結果 新發明한科學的回春劑로서 生殖腺內分泌를旺盛케하며 性慾을促進케하는『性호르몬』을主成分으로하고 效果의快速發揮를目的해 某種의化學藥品을配合하는데에成功하야 製劑化한것인바 兩成分의特殊的綜合效果가 體內에서 實質의約十五倍의作用을하는 强烈한藥效가有하므로 아무리性的障害에라도 短時日에 回復이되는理想的最新强性劑이다

에대우든不滿이完全解消 (北靑) 金五均

除頃 前番에보내주신『キングス』를服用한後로는 房事時完全한目的에到達치못하고 無限에대우든不滿이 一掃되엇사오며 愚妻亦是 近日에는 喜色이滿面으로 지내갑니다、여러가지補陽劑를먹어보앗소만은 이런藥은 처음이오며 또는빨리回復식혀주는藥效에는 더욱이驚嘆하는바이올시다、거진다服用해가오니 五圓分中瓶代引便으로 또速送해주시기바라오며 에대우든不滿이完全解消된일을 報告하고감사의뜻을表하는바이로소이다

늙엇다고斷念할것은아니다 (平壤) 黃致淳

七十이가까워오는늙음으로 잠자리에서도 그만噴服해버리고 말든것으로만 樂을삼고지내다가 하로는來訪한親舊들과 雜談끗헤『キングス』라는回陽劑의말이나와 먹으면조흔다는評判에엿처서 보낸것이 앗가워죽겟습니다 이러한名藥이잇는以上에는 늙엇다고斷念할것은아니오며 인제는 일이새삼스럽게 生覺나서 注文해다먹어보니 젊엇슬때게生覺합니다

조와하는心理를잘알겟다 (大邱) 曺承烈

前日上書에말삼햇바와갓치 男子로서 第一조와하는것이 마음대로안되면 그누가悲觀치안켓습니까 小生도그一人으로 煩悶을거듭하든中『キングス』를服用하야 完全目的을達케되고보니 비로소全部가조와하는心理가잘알겟는同時에 自己로서도 首肯하는바이올시다 인제는 絶對한性力을 利用할決心이오며 小瓶二圓十五錢先送하오니 大瓶으로 하나만 더보내주시요 强性劑로서는 批評할餘地업는名實共히 靈藥이라고 生覺하오며 꼭꼭내愛用할決心이올시다

弱한性器와衰한性慾의治療法 醫學博士 羽太先生談

一般成年男子로서 어떠한衝動으로 性的興奮을늣기게되면 그에따라 性慾이發現해지는同時에 性器는곳强直膨大의作用을 일으킨다 이作用은 우리人類의本能인生殖能力을發揮하는生理的現象에 지내지안는것이나 한번醫學的으로 解剖觀察하면 그의原因은 大腦、脊髓、末梢神經의聯合支配로因하야 性器海綿體에 血液이集中케되어 充滿해지는때문이다

그럼으로 衰弱해진性慾과弱해진 性器를强케하려면 무엇보다도 大腦、脊髓末梢神經의機能을 病的症狀으로부터强健化케하야 常態로回復식혀주는것이 絶對的治療法인것은勿論이다 余의發明인『キング・オブ・キングス』는以上의 性的原理에合致한製劑品으로서 服用한지三十分後이면 强烈한藥效가 各機能에迅速適切히作用하므로 그에 明確된性器는 最大限度로强直膨大해지는同時에 興奮感이倍前湧出하야 性目的을조곰도 不滿업시 完全遂行할수잇는것을 明確히斷言하는바이며 臨床的實驗으로 證明된것을 明言하노라

各藥房에업는사오니直接注文해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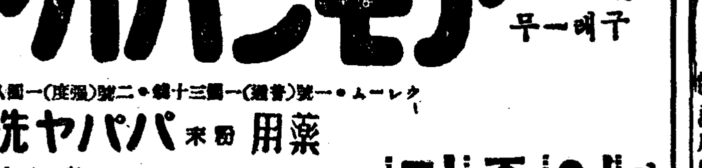
暗黑이光明으로 一變하며 無上한興味로 愉樂케하는藥에對하야 어데까지라도 責任잇는 態度로 取扱하기爲해 또는 新品을提供하며 廉價販賣를 目的하는 同時에 僞造를防止할도 必要하므로 本堂에서만 直接販賣하오며 各藥房에는 一切업사오니 如左를理解하여주시고 또재로되지안어 恨歎하시는 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振替、郵送으로 注文해주시면 至急秘密히 發送해드립니다 送料는 四十七錢이오나 本報讀者에 限하야 三十二錢은 弊堂에서負擔하오니 十五錢만은 加算해주십시요

價藥		
(小瓶)	一〇〇粒	二圓
(中瓶)	二八〇粒	五圓
(大瓶)	六〇〇粒	十圓

東京市芝區濱松町十三ノ一番地 總代理 合名會社 壽泉堂 (振替東京七七七一番)

손님대접에 아지노모도로 요리를 양념하면 대접하시는분은 경제롭고 손쉽고 자신이잇고 대접받으시는분은 맛좋다고 달게 자시지요!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商標 千 都壽 고초가루
釜山府草梁町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園 一二八二番 一三八二番 振替釜山一五三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질거운消息
藥用 ヤパンモア
藥用 パパヤ洗粉
겨울에생기는 여드름 죽은깨 기미 는惡性인것입니다
그래도낫습니다、아모리하여도낫지안튼것도 파파야를쓰십시다 主成分인파파이酵素와아미노酸의藥效는他藥의追從을不許하는 特效가잇습니다 ●見本進呈……三錢切手를너어申込하십시요
東京市神田區松住町 株式會社 杉田商店

醫學博士 三浦良雄
內臟外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入院病室完備
三浦外科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八四(京電裏) 電話本局② 一八四八番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龍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學生募集 學則送呈
滿洲自動車學校
奉天自動車株式會社附屬 每月一日新學期開始
本科 三個月卒業 受驗科 一個月卒業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 電話②二九四四番

長篇小說『愛慾의彼岸』大發賣中 朝鮮日報出版部發行

生徒募集
奉天測量學院
◆出願期日 一月廿日 ◆考査期日 二月四日 ◆詳細ハ學則請求スルコト(要三錢切手)
◆校舍 奉天十間房(奉天郵政管理局前) 電話本局(二)一四六六番
◆科別及卒業期間◆ 本科 六個月 速成科 三個月 研究科 二個月 通信科 六個月 (通信教授)

時計大廉賣斷行

▲純金과곱가는十八金代用側時計各種 ▲獨逸製火車標夜光時計 ▲獨逸製實用時計各種 ▲堅固實用向懷中時計各種 ▲中腕卷時計、엘진其他高級時計各種 ▲掛時計、置時計各種 ▲鍍金비녀반지各種大廉賣 (商報進呈) (先金注文에는特典有)
時計를사신後廣告와틀리거나合意치안으시면交換又返金함
▲時計修繕도酬應
新義州驛前 合名會社 三一洋行 振替京城貳四壹貳參

男女淋疾의靈藥 治麻球
定價 五十個入 一圓八十錢 百個入 三圓三十錢 百八十個入 五圓 三百六十個入 十圓
製造發賣元 救世藥館 京城南大門通五丁目 電話②二九六六九 振替京城一二九六九

開市 昭和十二年十二月十七日(陰十一月十五日)
第十五回 全州藥令開市
閉市 昭和十三年一月三十一日(陰十二月廿九日)
主催 全州漢醫藥組合

一月十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晝夜三回公演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R・K・O・社超特作全部日本版
喜笑劇 ブラウンの空中戰
西部活劇 假面의白騎士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版 現代名篇 秋の猿(アキのウラミ) 主演 三宅邦子、坪內美子、桑野秋雄、佐分利信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劇團靑春座公演第二週 (前週超滿員感謝)
一月七日부터 一月十一日까지 (五日間夜間만)
▲上演劇目▲ 冠岳山人作 거리에서주은淑女 一幕三場 林仙圭作 杏花村 二幕六場
▲次週十二日부터斷然上演 李雲芳作 사랑하는까닭에 全五幕 冠岳山人作 아버지는달달해 一幕
二大名劇을期待하소서
▲入場料金▼ 階上 大人六十錢 小人五十錢 階下 大人四十錢 小人三十錢 午後七時開演
東洋劇場 電話光化門 三六四〇(事務室專用) 二二五四(劇場專用)

海東銀行業務廢止 漢城銀行에讓渡

海東金融株式會社(假稱)로存續 目的과商號를變更!

海東銀行은 預金과 貸出을 漢城銀行에 讓渡하고 預金과 貸出의 差額및店舖料를 漢銀으로부터 바더가지고 海東金融株式會社(假稱)로 商號를 變更할터인데 銀行業을 廢止한後의 會社目的은 幾多務整理키爲한 金融業、不動産賣買라하며 整理가끗난後에는 京城紡織과 合併될것으로推測된다

海東銀行의沿革

株式會社海東銀行은 大正九年八月二十日資本金 二百萬圓으로設立된 銀行인데 初代頭取는 故 高羲敬氏이엇고 拂込四分一인五十萬圓으로 開業하얏는데 其後 波瀾曲折이만엇고 嘗時設氏가經營하다가昭和二年現經營者金季洙氏가 引繼하야 一株七圓五十錢의 拂込을하고 現在 八十萬圓(一株拂込金二十圓)의 拂込으로되엇이다

昭和十一年七月 湖南銀行과合併談이 成立되어 現實一步前에서 破裂되고 他銀行과의 合併이 結局로되어 오다가 이번에 銀行業務를 廢止케되어 이에海東銀行은 업서지게된것이다

▲配當率 自第一期至第五期 無配 自六期至第十三期 年三分 第十四期以降第二十二期無配 第二十三期以降 年四分

▲現重役 取締役會長 金季洙 取締役 文尙宇 取締役 李之鉉 金在洙 監査役 高光錫

▲大株主 株主中에 金季洙氏의 持株가四分三인 三萬株나된다

—預金은百六十萬圓! 貸出二百二十七萬圓—

昨年十二月末日現在 預金貸出高는 預金百六十萬六百二十三圓六十錢 貸出二百二十七萬四千九百九十六圓○四錢이다

貸借對照表

(第三十五期昭和十二年十二月三十一日現在)

科目	金額
現金預金勘定	[illegible]
現金	[illegible]
預金	[illegible]
預金	[illegible]
有價證券勘定	[illegible]
株式	[illegible]
割引手形勘定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荷付爲替手形	[illegible]
貸付金勘定	[illegible]
手形貸付	[illegible]
證書貸付	[illegible]
當座貸越	[illegible]
所有動産不動産	[illegible]
營業用土地建物什器	[illegible]
雜勘定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株主勘定	[illegible]
拂込未濟資本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預金勘定	[illegible]
當座預金	[illegible]
特別當座預金	[illegible]
通知預金	[illegible]
定期預金	[illegible]
別段預金	[illegible]
借用金勘定	[illegible]
借入金	[illegible]
再割引手形	[illegible]
他店借	[illegible]
雜勘定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未拂利息其他	[illegible]
未經過割引料其他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株主勘定	[illegible]
資本金	[illegible]
法定準備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當期利益金	[illegible]
(內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損益計算書

(第三十五期 昭和十二年自七月一日至十二月三十一日)

科目	金額
利益金	[illegible]
貸付金利息	[illegible]
割引料	[illegible]
受入利息	[illegible]
受入手數料	[illegible]
株式配當金	[illegible]
土地建物賃貸料	[illegible]
雜益	[illegible]
未拂利息其他戻入	[illegible]
計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損失金	[illegible]
預金利息	[illegible]
借用金利息	[illegible]
支拂雜利息	[illegible]
戻利息	[illegible]
再割引料	[illegible]
戻割引料	[illegible]
支拂手數料	[illegible]
滯貸金銷却	[illegible]
有價證券償却銷却	[illegible]
土地建物賃借料	[illegible]
給料	[illegible]
手當	[illegible]
賞與	[illegible]
營繕費	[illegible]
雜損	[illegible]
未經過割引料其他戻入	[illegible]
計	[illegible]
當期利益金	[illegible]
(內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利益金處分案

當期純益金 金二萬八百八十三圓
(內前期繰越金)
合計
前期繰越金 金二萬九百四十四圓
二十七錢也
合計當期利益金 金四萬一千八百二十七圓八十八錢也
어것의處分은如左함
法定準備金 金四千圓也
株主配當金(年四分) 金一萬六千圓也
後期繰越金 金二萬一千八百二十七圓八十八錢也

十日附로內認可

廿九日兩行總會에附議 海銀海州支店은漢銀支店으로

漢城銀行은 海東銀行(資本金二百萬圓拂込八十萬圓)의 業務引受에 對하야 韓圭中金季洙氏間에 契約이 成立되어 總督府에 認可를 申請中 十日로써 內認可되엇슴으로 來二十九日海東銀行定時總會에서 目的變更、商號變更、定款改正이 附議決定되면 漢城銀行에서도 同日總會에 海州에 支店設置(海東銀行海州支店)件을 附議키로決定하엿다

三十日부터 一切引繼 行員도全部引繼

一月三十日부터 漢銀은海東銀行의 業務一切를 引繼하게되엇는데 그要領은如左하다

一、漢銀은 海東銀行의 預金百六十萬圓 貸出二百二十七萬圓을 繼承함
二、海東銀行은 銀行業務를 廢止하고 目的變更과 商號變更을行하고 當分幾務整理를行함(從하야 株式會社는 그대로存續함)
三、海東銀行의重役은 一名도漢銀에入行치아니함
四、海東銀行의 行員十七名은그대로 本店十名、海州支店七名 漢銀에引繼함
五、漢銀은 海東銀行에對하야讓渡代償以外에 店舖料를支拂함

小銀行은不便 他業務에專念

海銀會長金季洙氏談

現下金融情勢와 其機構下에잇서서는 當行과가튼 小銀行으로는 不便하고 從하야 取引處에도充分한 滿足을與하기가 困難함으로 時勢에順應하야 銀行業을廢止하고 他業務에專念하고저 생각하얏다 多幸히 이에關하야 漢城銀行間에 業務引繼談이 圓滿히進行되엇다 漢城銀行은 受繼者인 使命을다하기에 充分한理解와 誠意를 가지고잇슴으로 當行을爲하야 또取引處를爲하야서도 대단히조타고생각한다

▼…廢止될海東銀行…▲

全朝鮮舊臘 手形交換增

手形交換所調査=十二月中의全朝鮮手形交換高는 三○六、五一四枚、金額二億四千百二十三萬七千圓으로 前年同期에 比較하면枚數三三、九六九枚를 減하얏스나 金額으로는 三三、九四五千圓이 增加하얏다 各地別로보면 元山大邱가 減한 以外 各其共히增加하얏다(單位千圓)

	十二月中交換高	前年同期比增、△減
京城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南浦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年末不渡 手形減少

昨年十二月中의 京城手形交換所의不渡手形은 小切手約束手形爲替手形 合하야 人員四十二名枚數五十六枚 金額二萬六千九百五十八圓으로 前月中보다 人員은八名 枚數二十七枚 金額은二萬二千五百五十七圓의 各減少로 銀行의貸付態에對한 嚴格方針에 依한것으로보인다

海銀을買收하나 漢銀增資不件

◇…林漢銀頭取談

海東銀行의業務買收에就하야林漢銀頭取는如左히말한다 昨秋부터 海東銀行 金季洙氏로부터 時勢의 進運에伴하야今後經營에就하야 相議를받고 當行의 立場도잇서서 折衝한結果、海東銀行의 業務를買收키로 決定한터이다 이交涉에는 金季洙氏가特히 紳士的態度로나온 結果 此種折衝에흔히잇는 仲裁斡旋者가는것이업서 거의 類例업시 直接交涉으로 十二月末에決定하얏다 直時總督府에 申請하야 一月十日付로서 內認可된것이다 二十九日에 兩社가 總會를열고 三十日부터 買收를實行할터인데 買收의手續은 이쪽에서도 資本增加를不件하고 海東도解散이아니니 簡單하다

金融統制에先鞭 業務讓渡의經緯

漢銀에서는 海東銀行을事實上買收하고 今月三十日부터 預金貸出其他一切의 業務를 繼承케되엇는데 右買收談은 當初海東銀行으로부터 直接漢銀에 交涉한것으로서 其間에 總督府乃至第三者인 斡旋者는 一人도介在치아넛다 海東銀行自體의 事情에基因한것으로 同行會長인 金季洙氏가 傍系京城紡織의 增資를計劃하고이때문에 海東銀行을업새고 資金에充當코저하는 目的이잇섯든것과 一方 海東銀行과가튼小資本에依한 銀行으로는諸種의不利不便이잇서 將來에 有望한發展이 朝鮮의 金融機構統制上으로 생각하야도 到底히 可望이업는 事情에 基因한것으로 보인다 海東銀行自體가金融統制上에 先鞭을부처 自治的으로 統制를敢行한것은 金融界에서 好感한다

"合併"이아니다! 二百萬圓會社는存續

總督府山地理財課長談

海東銀行과 漢城銀行間의 業務引繼問題는 오래前부터 兩方이서로 議論을 進行하야오든것인바 最近에 맛좀내 確定되엇다 普通合併과는 달러서 海東銀行業務만 漢城銀行에서 引受하는것이오 二百萬圓의 株式會社資産은 그대로남겨두어가지고 營業目的을 變更하야 存續할모양이다 現海東銀行員의 大部分은漢城銀行에서 引受할터이오 其他幾餘一部와 重役은 營業目的變更되는 會社에서執務할모양이다 金季洙氏는얼마前부터 銀行界에서 引退하랴든터이엇스므로 今後는京城紡織에만 專力할것이다 正式決定其他는 今月下旬頃 海東銀行株主總會를지처서 곳決行하기로되엇다

各種試驗機關 連絡委員會規程決定

總督府에서는 朝鮮産業의進展을圖하기爲하야 全朝鮮各産業試驗調査機關의 聯絡委員會를設置하기로決定하고 主務課에서 鋭意準備中이든바 마침내 十一日그具體的成立을보게되엇다 其內容은 名稱은 朝鮮總督府試驗調査機關連絡委員會로 委員長一人 委員若干人을두고 委員長에는 政務總監이 안는데 委員은 朝鮮總督이 此에當하고 此를任命한다

輸出綿布을 檢查品種指定

總督府에서는 朝鮮經由又는朝鮮産의綿布에重要輸出品檢査規則에依한 指定品種으로하고 輸出의 統制를圖키로되엇다 米國에서生産이업슴으로 그輸出은認可치안을 方針이오 比島向綿布는 朝鮮內當業者로하야금 組合을 結成케하야 內地組合과 協議한後 本邦輸出數量의 朝鮮配定을 決定하리라한다

米倉在庫 創立以來新記錄

米倉에의 貨物入庫狀況은 舊臘以來 漸增하고잇는바 一兩日前의在庫高는드되어 五百萬個를突破하야 同社創立以來의 新記錄을지엇다 右中 米穀은 百五十萬個未滿인바 豊作에依한 米穀의 海港地廻着이 激增한것이 主因이고 其他의貨物도 近來 急增하고잇다 그리고 鎭南浦港의積出에依한 船舶의 出入中止에依하야 同港의 滯貨는만허 米倉支店에의入庫는 百萬個에達한다

荷動狀況

▲鐵道局十二月下旬分荷動狀況은 前旬에 繼續하야 依然堅調를 保持하얏는바 石炭은 船腹不足에依하야 內地石炭이減少하고 또鑛石과黑鉛 石灰石의 出荷減少한外 各品目으로다增加를示하야 今旬成績은 三十六萬八千八百七十一噸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四萬七千百七十三噸의增加이다

商銀順川支店新設 二十五日總會에附議

商銀에서는 滿浦線方面의 經濟力發展에 注目中이든바 平南順川(滿浦線과平元線의交叉點)에 支店을 設置코저 總督府에 內認可를申請中 內認可를得하얏슴으로 二十五日定時總會에 附議한後 正式으로 認可申請키로된바 開業은 四月上旬이되리라한다

經濟界消息

○漁組中央會長에 谷多喜磨氏就任 昨年五月에 創立된 朝鮮漁業組合中央會會長은 缺員中이든바 穗積眞六郎 朝鮮信託社長谷多喜磨氏에게 交涉하야 同氏가 受諾하엿슴으로 理事會의 推薦에依하야 谷氏가 會長으로 就任되엿다

○有賀光豊氏를顧問으로推薦=朝鮮貯蓄銀行에서는 二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定時總會를 開催할터인데 右附議事項中에 顧問을 設置하는件이 上程될터인바 右는 同行創設者로서 因緣이 적지안흔 有賀光豊氏의 推薦을보게될터이라고

○全朝鮮工業者大會 仁川에서開催키로決定=今年開催의 朝鮮工業協會主催第五回全鮮工業者大會는 昨秋平壤에서 第四回大會에서 仁川或은 大邱로內定하얏든바 其後 兩地와 朝鮮工業協會와 協議한結果 六月中旬仁川에서 二日間 開催키로 決定하얏다 그리고 同時에工業協會의 定時總會도 開催할터이라고

○宮林商店改組丸宮商事創立=綿絲布都賣商으로 有名한 宮林商店은 今回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고 去七日 丸宮商事株式會社(資本金四十五萬圓 全額拂込)을創立하얏다

株式 底堅裡에揉合

今日의市勢(十一日)

▲取締役社長 ▲取締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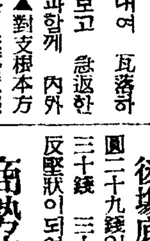
前場軟保 昨後場의堅調를承繼하야 今朝의米國株式과 圍繞하는 好材料가 解消되엇스나 今日開場의 前面의 關心은 慎重한 態度로 處分物以外의 新規賣買가적어 場面은 閑散하고 市勢도 軟味를띄게되어 東新百七十圓五、鐘新二百七十八圓五、滿洲重工이라 日産은 八十六圓六으로 前場을 마치엇다

後場少堅 後場은 東新四高로 少堅裡에寄付後 依然한賣買薄의保合으로 推移되다가 少堅裡에 大引되엇다

底堅裡에揉合

二十餘日의保合으로 主力株의 分岐는 마치내 切迫되것으로보이는데 市勢는 此邊에서 一高一低로揉合을 거듭하게되엇다 米國景氣의回復과 外電高는 東京의樂觀、北支明朗化貿易前途의 好材料에 看過되엇스나 至急히는 模樣에 모든 市況의 根本國策과 對支根本方針은 마치내 御前會議開催까지 보이는場面이 되어揉合狀이 口側의 處分物로 市勢는 軟味는 不賣 不買로 傍觀하고 小取하지 안흐려는 態度로 仕手筋은 보기까지는 積極行動을 關心은 一種의 念慮化하야 그 全貌를

市場六感



(株)…增稅에걸려 瓦落하엿다가 그內容을보고 急返한 情勢는 好轉이나▲對支根本方針을圍繞하야 御前會議에까지 緊張狀態를繼續하다가 結局今日의 歷史的御前會議까지 進展되고보니▲對支方針의 根本的轉換期에當하야 그影響과 그後의 情勢展開를 關心을가지고 보자는것도 또한當然▲一高一低의揉合은 이를反映한것이나 市勢는 意外로底堅!▲이것이上進을爲한 押目이냐? 低落前夜의靜寂이냐?▲御前會議後에는 對支發表가 잇슬것이오 또政府의 革新政策이 遂行될것이오 또이어서 議會가 再開될 順序다▲今後 얼마동안은 分岐가된다하드라도 坦坦한順路는 아닐것이오 亦是波瀾을 그리면서 어느時期까지 갈모양……(金剛城)

(米)…日復日曷하는 商勢는 今朝에야 一息의 感을주는 한다 春高氣分의 行動으로서 一巡?▲相場律에依하야는 어느程度까지의 反動落을豫想하는 또있는 程度까지 米界의 不安이 없는 無▲此邊의 高價로 見한政府로서는 買上을 斷行하지안흘 것이다 來二十日에 豫想과 如如何 賣收高의 減收程度가 마치어 如하지 ▲何如間天下米界의 人氣는 押目買의 豐作 으로 觀望하는 모양이나 勝 入氣은 豐饒때(金川)

米期 少弛이나 頑强

前場小弛 今朝阪地三十四圓八十六錢인 十八丁反落을 報하고 當은二圓七十九錢인 十丁低 中은 一圓八十六錢인 十五丁低로 先限은 三十二圓二十六錢인 十丁低로 場를 始한後 阪地三節二節三十八錢으로 跳返하드니 阪地七節九十一錢으로 反落을看하야 七節三十一錢으로 九節阪地 九十四錢의 小返을入하야 八節 三十五錢으로 結局阪止九十三錢을보고 三十六錢에 止場하다

後場底堅 後場은 三十二圓二十九錢인 七丁低로 始한後 三十錢 三十五錢 三十六錢으로 反堅狀이 되엇스나 頭重狀이다

商勢依然强硬

春高氣分은 依然落在하야 地共히 一齊騰勢로 東京은昨年 事變當時의 高價를突破하고 大阪은 客膩의 高價를 上廻하엿스며 當地亦客膩의 高價인 三十二圓二十五錢을 突進하고도 오히려 餘勢는어느 市場을 不問하고 又復數段의 高價를示할듯한 形勢를보이고잇다 要하면 그騰因은 內地米賣取高의 減減說을 비롯하야 政府米買上을 唯一한 强材로 羽한모양인데 內地米賣收高는 百萬石乃至二百萬石의 減收說까지잇스나 此는너머나 漠然한 觀測으로 第二回豫想의百二十餘萬石의 減收로보아서 又復大膩의 減收를 見하리라고는 講키難하고 又는政府米買上으로말하면 政府의立場으로서의 買上하지안할수업는 不得已한일이나 그러나 米價가 如是昂騰하는때는 買上을 一時遷延할지도

地場側의苦戰

亦未知이므로 此邊의 高價에서 어느程度까지의 反落을 告하엿다가 本格的騰勢를보이지안흘가 한다 그러므로 一般의豫想과如히 商勢도 依然强味를 示치안코 押目買의 人氣가濃厚하야 滿天下米界는 春高豫想의氣分에 醉하야 누구나 買煽하는 光景이다 地方에도 自由地方의 賣情으로 注文의賣勢에 看

國債 金融好調 買進

【東京電話同盟】金融의 好調를 背景으로 實需買의 內地債의 一齊히 五錢乃至十錢買進되엇다 佛貨는 五錢軟化하고 米貨는 海外不勢와함께 六分半九十錢低五分半四十錢低가되엇다

▲一回四分一〇二、二〇▲二十八年物九八、三〇▲佛貨四分一九七、〇〇▲米五分半三六八、五〇

仁川在米增加

仁川在庫米는 八日現在 合格米五七、八三叺 五斗入 三三、一六三叺▲白米四斗入 八、六三三叺 五斗入二〇〇叺 俵入 三、四四〇俵▲正租 一九九、六二六叺▲大豆 二二、五九五叺▲小豆 三八〇叺▲大麥 一五叺▲小麥 五〇叺▲蕎麥 八六二叺▲綠豆 七、九〇叺▲糯米 一七五叺

三叺의增加를 示하엿는데 在品을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 一八二、二九〇叺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暫時形勢觀望

支那側의 據點的抗日宣傳에不拘코 戰局의大勢는 旣定事實的으로決定되어 今後是南京政府와의 交涉에는 亦是相當한 時間이必要하다고는하는 主觀的見解가 支那의 今次事變과 時局에 依한 日支關係를 米國의 中立維持하는 冷靜態度가 何等念慮를 要할것이업는 今日에 大局的으로보아 事變을念慮하야 何等問題의 憂慮에 眞實하지아니하다하면 事變中이므로 어느때 무슨 突發事件이날지도 모른다는 懷疑的態度로 臨하고 急進不成하는 時勢는 軍需이되지못하고 强氣로서도 對支根本方策發表前後를 靜觀키위한 賣氣로 注意하는 態度인것 같으므로 이에 出馬하여도 늦지아니하나 分岐後에 出馬할까하는 態度로 形勢를暫時觀望하는것도 無妨치안흘가하는說도잇다

物資需給上 調整强化가行하는一方으로 小口側으로도 需要增加의傾向이잇서 消費方面에서 市價는 하는것이 아닐까 하는 모양이다

賣買 上昇 實收高의減少又는 政府米買上 將來가되어 增收의 價格인 米界의實情을 보아서는 産地實物이 漸減하고 然이나 數月前後의 見解로서는 春高 豫想으로 穀物高보는 不減이라는 觀測으로 相場의 變動을 보기어렵다 何如間 果然 今後 商勢의 一時的이 다 防止하려면 苦戰不免이라는 견해도잇다

今日財界 十一日

◆米 今日寄付 比前日終止

仁川朝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米	[illegible]		
米倉	[illegible]		
正租	[illegible]		
一斤	[illegible]		
公債	[illegible]		

◆株 今日寄付 比前日終止

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取新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釜山伸悩

新騰期米는 不良하야 小口의消極取引으로 市勢는 伸惱이엇다 四等三、一○ 一等白米一三、一○ ⑦一三、一○

大邱續高

正租出廻는 大體로 順調이나 天候高와 買氣旺盛으로 一般人氣에依한 賣物減少로 騰勢를보이다 四等三、○○ 四等三、二八○ 一等白米一三、九八

群山少弱

當地의 出廻는 十二萬叺으로 減少를 示하엿스나 正租鮮米로 賣物이 相當하야 各地市場의 不振으로 相場의 下放 價同樣 乃至五錢低의 不味이다 ⑨三等三、○五 四等三、一九○ 一等白米一三、一○ 四等三、二○ 一等白米一二、八五

木浦下游

大阪側은 前途高騰으로 一步도不讓하야 奧地正租市勢는 益益昂騰하고 出廻는 昂騰의 配되는 動向으로 三圓全鮮一의 割高로 絕好의 狙場으로된 仁川籾取側의 渡地定期 米가 一時에 流入하야 地場의 買煽에依한 伸力도 이때문에 阻止되어 今朝阪地의 下放도 影響하야 市價는 前價同樣으로 伸惱風情의 場面이엇는데 如斯한 特殊事情으로 今後의 當地正米의 動向은 顯著히 注意를 集中케되엇다 ⑥銀坊主三等三、三○ 四等三、三○ 一等白米一三、○四

正米 京仁低나 區區

京城軟化

定期軟調에 件하야 市價十錢低이엇스나 取引은 籾正을 압두고 意外로 活潑하다 ⑦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一三、二〇

仁川反落

東地는 繼續하야 頑强하야 賣物이적고 一方買方은 高價에 買躊躇態度이어서 消極的인 態度이때에 定期의 小弛로 唱價도 鈍化하야 稍稍米側의 適品物色買外는 賣買薄이어서 十錢의 少反落을 演하였다 ⑦銀坊主 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七〇 多摩錦三一、九〇

海外經濟 十一日

種目	比較
紐育株式	[illegible]
工業株	[illegible]
鐵道株	[illegible]
棉花現物	[illegible]
米先物	[illegible]
英米	[illegible]
日米	[illegible]
先物	[illegible]
印棉	[illegible]
平均	[illegible]
市場	[illegible]
綿花	[illegible]
倫敦	[illegible]
銀塊	[illegible]
金塊	[illegible]
銀價	[illegible]
砂糖	[illegible]

銀行券 十一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預金高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 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東京金利◆

翌日物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鰯油粕·粉麥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大阪金利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illegible]

趙後鎬取引店 期米 仁川 …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代表長二一六六

朝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朝取短期主要取組高

株式

◆朝取短期

	寄付	大引	高値	低値
朝取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illegible]

京城物價(十一日)

▲白米(斤、單位錢)	[illegible]
▲麥粉	[illegible]
▲石油	[illegible]
▲紙物	[illegible]
▲燃料	[illegible]
▲砂糖	[illegible]
▲染料	[illegible]
▲海産物	[illegible]
▲木材	[illegible]
▲人絹	[illegible]
▲毛絲	[illegible]
▲牛皮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群山期米 ◆木浦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砂糖 生糸 人絹 棉花 綿糸

◆大阪砂糖 ◆東京砂糖 ◆橫濱生糸 ◆各地人絹 ◆大阪棉花 ◆大阪綿糸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